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일 시 : 2016. 1. 25(월) 10:00 ~ 17:30
- 장 소 : The-K호텔서울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일 정 표



■ 세부 일정(1권역) : 2016. 1. 25(월) 10:00~17:30, The-K호텔서울

시 간		내 용	발 표
~10:00		등 록	
10:00~10:10	10'	개회 및 인사말씀	교 육 부
10:10~10:30	20'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	이 용 옥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10:30~12:00	90'	이우 교장, 5 가지 과오를 돌아보다	정 광 필 (전)이우학교 교장
12:00~13:00	60'	중 식	
13:00~13:40	40'	대안교실의 성공적인 운영전략	강 신 일 (서울대원고등학교 교장)
13:40~14:00	20'	휴 식	
14:00~15:00	60'	대안교실 운영사례 1	
		행복과 맑은 꿈이 자라는 행복한 교실 - 인천송천초등학교 -	공 속 자 (인천송천초등학교 교장)
		학교행복플러스 「꿈·마음·성장교실」 - 강원목호중학교 -	주 향 속 (강원목호중학교 교감)
15:00~15:20	20'	휴 식	
15:20~16:20	60'	대안교실 운영사례 2	
		성장·나눔·평화의 배움공동체 - 서울삼각산고등학교 -	옥 현 중 (서울삼각산고등학교 교장)
		교육, 마을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 서울영일고등학교 -	심 건 섭 (서울영일고등학교 교장)
16:20~16:30	10'	휴 식	
16:30~17:30	60'	분임토의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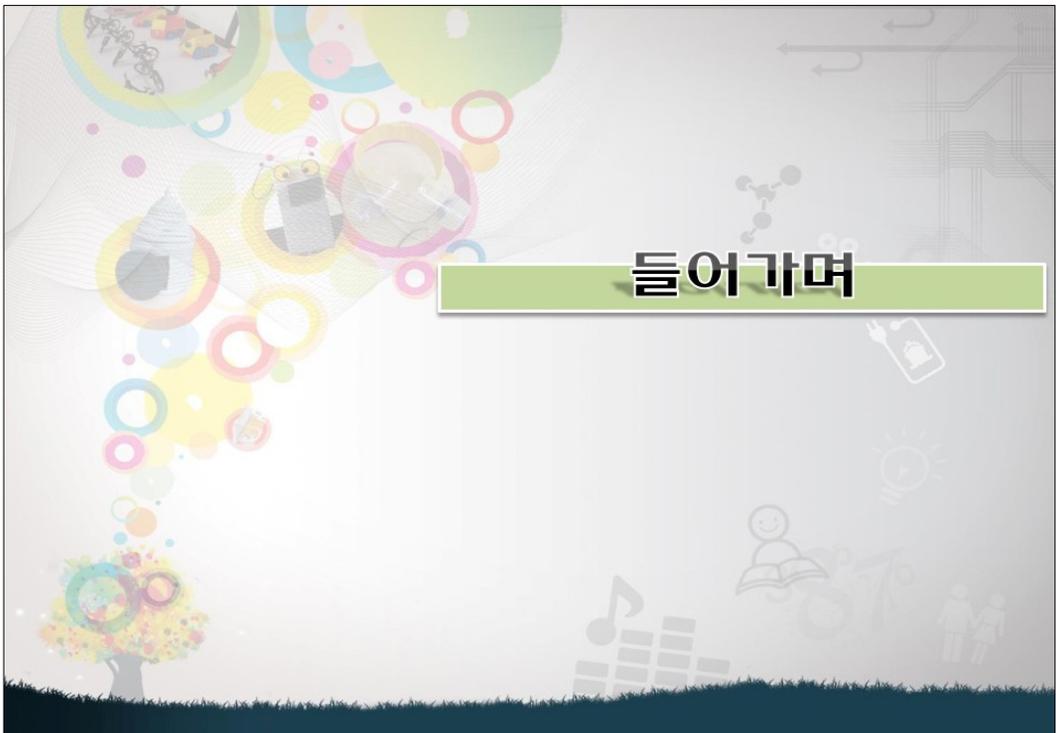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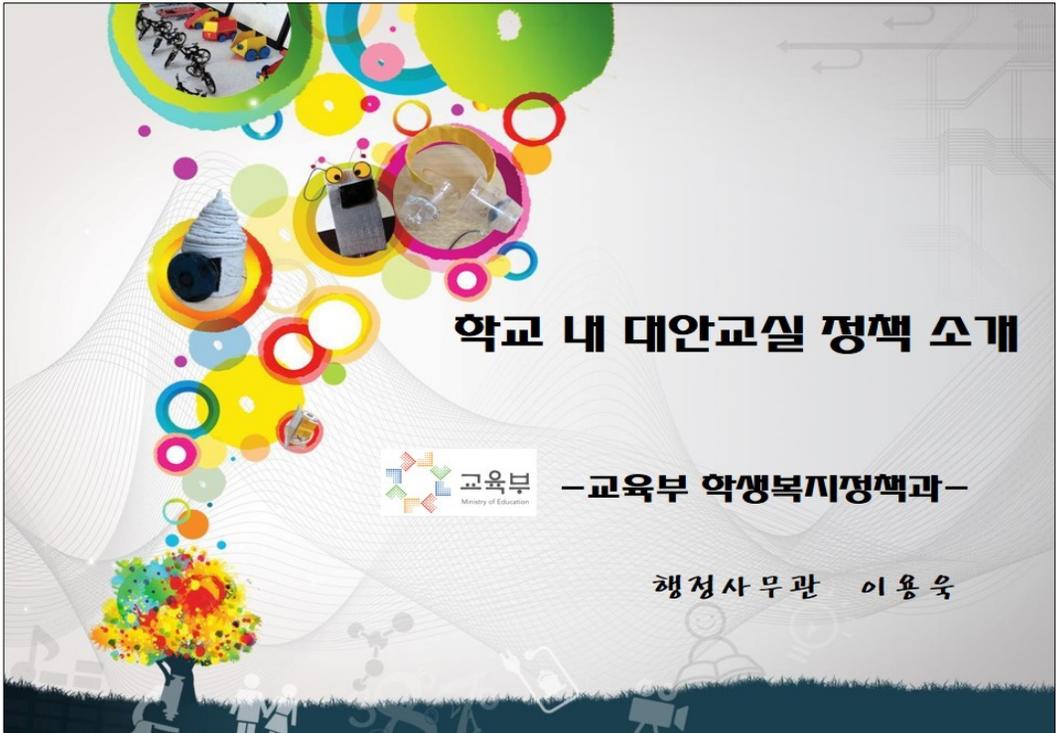
-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 1
 - ▶ 이용욱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 이우 교장, 5 가지 과오를 돌아보다 13
 - ▶ 정광필 | 전)이우학교 교장
- 대안교실의 성공적인 운영전략 29
 - ▶ 강신일 | 서울대원고등학교 교장
- 대안교실 운영사례 1 : 행복과 맑은 꿈이 자라는 행복한 교실 45
 - ▶ 공숙자 | 인천송천초등학교 교장
- 대안교실 운영사례 1 : 학교행복플러스 「꿈·마음·성장교실」 63
 - ▶ 주향숙 | 강원목호중학교 교감
- 대안교실 운영사례 2 : 성장·나눔·평화의 배움공동체 87
 - ▶ 옥현종 | 서울삼각산고등학교 교장
- 대안교실 운영사례 2 : 교육, 마을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97
 - ▶ 심건섭 | 서울영일고등학교 교장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137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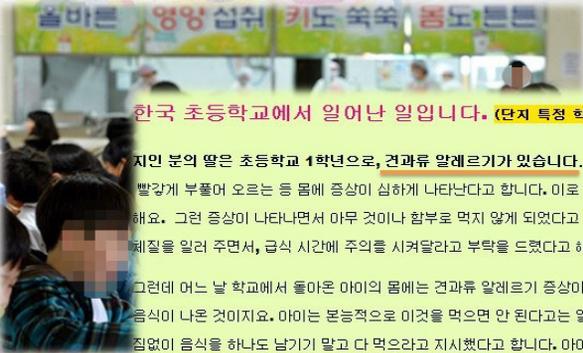


이 용 윅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대안교육이란 ?



한국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단지 특정 학교의 사면임을 밝힙니다.)

지인 분의 딸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아이는 견과류가 들어간 것을 조금만 먹어도 입 주위가 빨갱게 부풀어 오르는 등 몸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친구가 주는 과자 혹은 사탕 등도 잘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분은 학교 입학 때 담임 교사에게 딸의 특이 체질을 알려 주면서, 급식 시간에 주의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몸에는 견과류 알레르기 증상이 발견되었어요. 알고보니 급식 시간에 견과류가 들어간 음식이 나온 것이지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평상시처럼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주저하면서 먹지 않았지만, 교사는 끝까지 다 먹으라고 했다고 하네요. 결국 아이는 그 음식을 다 먹고 말미 난 것입니다.

죽전초, 이슬람권 다문화학생 맞춤형 급식

이슬람권 학생 위해 돼지고기 대신 닭갈비로 대체

2015년 08월 24일 (목) 18:30:06

이대경 기자 EJK@news.co.kr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방법

특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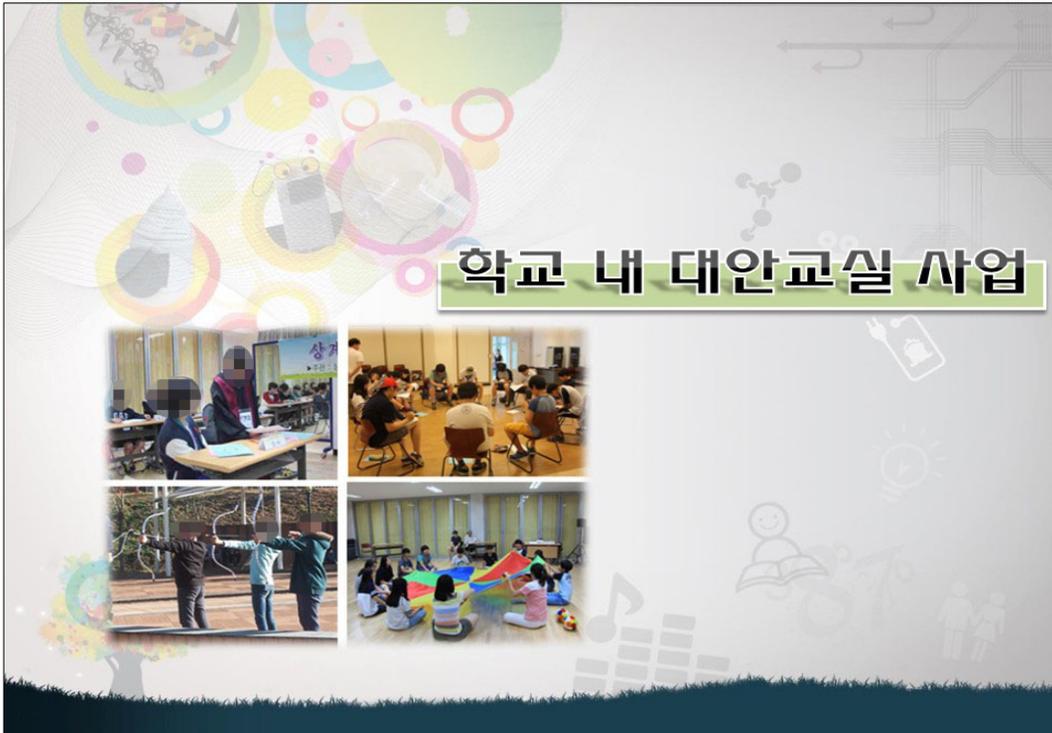
학습자 중심

특징 2

다양성 인정

특징 3

선택권 존중



학교 내 대안교실 사업



학교 내 대안교실이란?

❖ 추진배경

- ❖ 학생 한 명 한 명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
- ❖ 학교 부적응 학생, 위기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필요

☞ 대안교실의 정의

: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학급

유형 별 운영 형태

– 전일제 사례

전일제 대안교실

- **(형태)** 교육과정의 전부를 대체하는 별도의 대안학급을 편성, 운영
 - 학기제 (1학기, 2학기) 형태 운영 가능
 - 대안교실은 학기 내 상시 운영 중이어야 함
- **(교육과정 운영)** 보통교과 + 대안교과 (*편성 비율은 자율)
 - 보통교과 운영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육방식 허용
 - ex) 역사신문 만들기, 문학 작품 역할극, 창업과 수학 등
- **(평가)** 대안교실 내에서 중간, 기말고사 실시



유형 별 운영 형태

– 부분운영제 대안교실

부분운영제 대안교실

- **(형태)** 교육과정의 일부를 대체하는 별도의 대안학급을 편성, 운영
 - 반일제(오전반, 오후반), 요일 선택제, 기수제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교육과정 운영)** 대안교과 중심 (*보통교과 편성 가능)
 - 체험, 진로교육, 상담심리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 적성 발현 유도
- **(평가)** 소속 교실에서 중간, 기말고사 실시



대안교실 교육과정 운영모형 (예시)

<p>【진로, 직업 중점 모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십을 통한 배움 (LTI) • 바리스타 자격반, 제과제빵 자격반, 포토샵 자격증, 현장 인턴, 직업 멘토링 등 • 직업현장 탐방,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 • 관심있는 직업분야에 대한 장, 단기 프로젝트 <p>(중점) 학생의 진로를 탐색, 직업능력 배양, 적성발견을 통한 열정 회복 유도</p>	<p>【치유 중점 모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이해, 자아성찰, 자아존중감 향상 • 글쓰기, 독서 체험을 통한 심신치유 • 상담치료활동 : 자아발견 프로그램,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원예치료, 독서치료, 미술치료 분노조절, 감정코칭 등 <p>(중점) 정신적 회복유도, 불안감 해소 등</p>
<p>【체험 중점 모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체험 : 텃밭가꾸기, 와초키우기, 옥상농장 등 • 문화예술체험 : 영화제작 및 제작보조, 연극 시나리오 제작 및 시연, 음악연주, 댄스공연, 도자기제작, 미용체험 등 • 봉사활동 : 노인장, 경로당 급식봉사, 장애시설 방문 등 <p>(중점) 학생의 관심성 및 상상력 촉진, 교과수업이 아닌 다양한 체험교육 제공, 체험을 통한 배움 증진</p>	<p>【교육, 자기계발 중점 모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맞춤 교육활동 : 학습 부적응, 학습 의욕 저하 학생들에게 수준별 교육 제공, 소규모 팀 티칭 등 • 자기계발 : 스포츠, 예술, 인문학, 공학, 자연과학 등 재능발굴 • 학습 부적응 학생 대상 교과 수업 외 특화교육 추진 <p>▶ 예 :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정, 영어 용변 특화 과정 등</p> <p>(중점) 학습 의욕은 있으나, 주요교과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보강 및 특화교육</p>

사업 주요 내용

- 학교 내 대안교실 지원 내용

❖ 대안교실 프로그램 개발, 운영

대안교실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구축
강의자료 제작 및 프로그램 연구회의 등

최대한 기존 인력을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대안교실 중 예산의 50% 이내
에서 활용 가능

❖ 대안교실 운영에 직접 필요 교재(도서) 구입 지원

New

❖ 시간제 강사 비용 : 대안교실 전담 강사 교과 수업 대체 강사

사업 주요 내용 - 강사 수당 관련

구분	지급대상	단가
특별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장관, 국회의원, 대학총장 및 교육감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등 	기본 : 250,000원 초과 : 150,000원
일반강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판검사, 변호, 엔지니어, 의사, 기술사 등 자격소지자 •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 전문 강사 •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 4.5급 공무원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등 	기본 : 160,000원 초과 : 120,000원
일반강사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시간강사, 외국인 원어민 강사 • 4.5급 공무원, 장학관, 교감, 장학사 등 	기본 : 130,000원 초과 : 70,000원
일반강사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체육, 문화, 전산 등 교육프로그램 강사 	기본 : 80,000원 초과 : 70,000원
보조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실기, 실습, 제철 등 보조강사 	기본 : 30,000원 초과 : 20,000원

※ [강사료 할증 기준]

• 70-119명 : 20% • 120-169명 : 40% • 170-219명 : 60% • 220명 이상 : 100%가산



사업 주요 내용 - 강사 자격 관련

최소 요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참고

- ☞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자
-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된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 ☞ 고졸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된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사업 주요 내용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컨설팅 New

❖ 대상학교 : 140개교 (신규 또는 운영상 어려움)

<컨설팅 팀 구성>

- ☞ 대안학교 관리자
- ☞ 청소년 관련 전문가
- ☞ 모범 대안교실 운영자
- ☞ 지역사회 전문가 등

지역별 컨설팅 실시



사업 주요 내용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작



- 대안교실 구성 노하우
- 학생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적용 방법
- 대안교실 프로그램 개발 TIP
- 대안교실 환경 조성
- 지도 인력 구성, 강사 인력 pool
- 예산 관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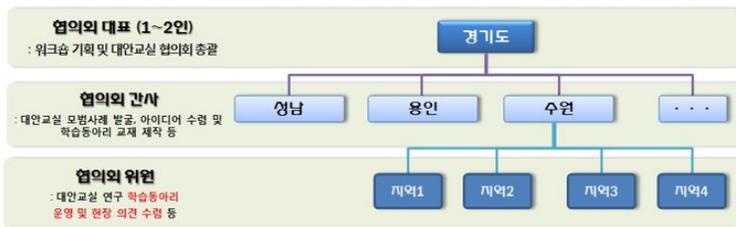


사업 주요 내용

-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 ^N

❖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

- 시·도별 대안교실 담당교원 워크숍, 모범사례 공유
강사 인력 공유, 학습동아리 교재 제작 등을 담당



※ 협의회 대표는 지역별 선출이 원칙이나 간사, 위원의 경우 반드시 지역으로 구분할 필요 없음 (자유적 운영)

사업 주요 내용

-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 ^N

협의회 역할

- 시·도별 대안교실 담당교원 워크숍 진행
- 대안교실 모범사례 및 강사 인력 공유
- 학습동아리 교재 제작, 학습동아리 운영 등

지원 내용

- 지역 단위 워크숍 비용
- 학습 교재 제작비용
- 협의회 회의 및 운영 경비 등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 활동 모습

전문성 제고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체험

월례 협의회 회의



사업 주요 내용 - 대안교실 학습동아리 ^N

❖ 대안교실 학습동아리란?

: 대안교실 교원 간의 대안교실 운영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사업 주요 내용

-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N



권역 별 나뉘어 걸쳐 진행
약 1,300여명 연수 참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우 교장, 5 가지 과오를 돌아보다



정 광 필
(전)이우학교 교장

이우 교장, 5 가지 과오를 돌아보다

이우학교 전 교장 정 광 필

대안교실을 운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정규 대안학교에서 2003년부터 8년 동안 아이들을 만났다. 그리고 지난 여름 SBS 창사 특집 교육다큐멘터리의 일환으로 [바람의 학교]를 하면서 꽤 힘든 아이들과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씨름을 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다양한 이론과 사례가 공유되겠지만 성공사례는 남의 이야기 같고, 그 조건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구체적인 실패와 결정적인 과오들을 돌아보며 함께 반성하게 될 때 그나마 모두의 귀가 열리고, 조금이라도 실천으로 옮길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굳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의 사례를 평가자의 시선이 아니라 실천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우리학교에서 나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를 고민하는 데 밑거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1. 열심히 했는데,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제대로 한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나 우리에게 익숙한 법생이의 눈으로는 법생이만 보이는 것 같다.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 눈빛이 공허하다?

2005년은 이우학교가 개교 3년차가 되어 중1에서 고3까지 모든 학년의 학생이 채워졌다. 개교 준비를 7년 정도 했고, 처음 3년간 모두들 열심히 뛰었다. 교과서를 다 내던지고 모든 교재를 새로 만들기도 했다. 소문이 나서, 그해 가을 대표적인 수업 중 하나인 중학교 2학년 철학 수업을 동영상으로 찍어 국제 워크숍에서 공유하고 그에 대해 연구하는 자리가 있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 수업에 대해서 칭찬이 이어졌다. 제일 끝에 사토 마나부 교수가 강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아이들이 참 열심히 하는데, 정작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공허하다.”

“발표를 참 열심히 하는데, 제각각 자기 발표 준비만 하고 있다.”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고민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 비디오를 꼼꼼히 봤다. 그랬더니 빨간 잠바의 민수라



바람의 학교, 대화가 막혀 난감해하는 필자

는 친구가 한 블록 내내 졸다가 깨다가,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다. 민수뿐만이 아니라 그런 아이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전엔 안보였다.

우리가 주로 '수업이 좀 되고 있다', '내용도 있고 깊이도 있고 활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선생님이 잘 조절하고 연결도 잘 시키고 있다'고 이야기 할 때의 주된 타깃은 누구인가? 대개 어느 학교나, 어느 반에나 있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과 주고 받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서 뭔가 잘 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아이와 잠들어 있고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과는 수업 내에서 교류가 거의 없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 시선을 피해서 졸다가 깨다가 먼 산 쳐다보다가 열심히 하는 아이 뒤에 숨는, 이런 아이들이 새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친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저희 관점의 한계를 심각하게 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이런 결과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포부가 매우 컸다. 특히 잘 못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잘 챙기겠다는 욕심이 컸는데, 그 아이들을 다 놓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양극화마저 초래한 것이다. 그래서 심각한 반성 끝에 '수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시작했다.

이 수업을 보고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공개수업은 보통 학교에 처음 오셨거나, 젊은 선생님들을 시킨다. 그리고 초반에 그 학교에서 제일 발언권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래도 시작은 예의상 칭찬을 조금 한 다음에, '그런데'로 시작하는 본론이 있다. 지난 10~20년 동안 배웠던 것, 봤던 책

등 온갖 것을 동원하여 배경 지식을 깬 다음에 그 선생님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 많은 말들이 어찌다가,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대부분은 등쪽에 쫓힌다. 그래서 그 날 끝나고 나면 꼭 술을 먹게 되어 있다. 다시는 이런 것 하고 싶지 않다. 그 심정을 아는 동료들은 마음이 잔해진다. 학교 분위기는 한동안 싸해진다.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무적으로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업공개가 있는 날, 그 학교 분위기가 싸해지고 있다. ‘무엇을 위한 수업 연구회인가?’



수업연구회에서 필자가 모둠별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칠판에 그리고 있다.

2006년도부터 저희가 수업연구회 방식을 바꿨다.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에 선생님들이 둘러앉았다. 칠판에 아이들의 이름과 좌석 표를 그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맨 처음에는 ‘이 수업을 보고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선생님이 내가 이 수업을 보고 무엇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다른 분들도 다 공감이 된다. 또 수업을 본 분들은 ‘모두 다’ 내가 이 수업을 보고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한다. 30명이 봤으면 30가지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뀐다. 우선 선생님들이, 전에는 '아, 이번에는 뭐가 문제일까?', '이번엔 내가 무슨 이론을 가지고 이 선생님의 어떤 문제를 지적해야 하나' 하는 눈으로 수업을 봤는데, 이젠 '이 수업을 보고 내가 무엇을 배웠나'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면 수업을 관찰하는 눈이 어떻게 달라질까?

동창회에 나가보면 누가 선생님인지 금방 알아채지 않나? 우선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설명하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고, 문제는 꼭 지적해야 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교사다. 교사가 본래 그런 성격을 타고난 것일까? 아니다. 지난 수십 년의 교육 현실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내몰았다. 그런데 우리가 늘 가르치고, 아이들의 문제를 지적하면 범생이들도 이를 따라한다. 선생님이 배우려 하면 아이들도 덩달아 배우려 한다.

이렇게 수업연구회를 바꾸면 다 같이 배우는 분위기로 바뀐다, 이 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업을 공개한 분의 변화다. 우리나라의 많은 선생님들은 콤플렉스에 시달린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수업 연구회 장면에서도 그랬지만, 위로는 부장, 교감, 교장 선생님, 또는 아이들, 혹은 학부모들로부터 선생님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리고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각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30명이 내가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뭘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하나가 수업을 공개한 선생님한테는 보약이 된다. 별안간 내가 뭘 잘하는지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모아놓고 보니까,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딱 정리가 된다. 스스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까지 떠오른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전에 수많은 콤플렉스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서, 그 문제를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내가 이 수업을 보고 뭘 배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모여 정리되는 순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긴다. 그래서 보약이 된다.

C는 어떻게 깨어날까?

수업연구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중학교 2학년 과학 수업. 특히 이 시기의 남학생들은 반인반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옆의 여학생을 누님으로 모시고 산다. 이것은 발달단계의 차이 때문이다.

철수와 영희가 있다. 철수는 수업시간에 졸다 깨다 하는 아이다. 공개 수업이 시작되었다. 평소와 다르게 선생님들이 왔다고 해서 별안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에겐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난감하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나, 줄기도 뭐하고. 그런 심정을 짝인 영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뭘 같이 해보자고 선블리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나는 데 3년 걸렸다

한 15분쯤 지났다. 생물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철수가 역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야, 이거 네가 설명해줘야 할 부분인데...”라고 한다. 사실 철수도 15분 동안 해매고 있다 보니까 견디기 힘들었다. **그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공부를 하고 말지**, 하는 심정인데 영희의 말에 명분 있게 모둠 활동에 끼어든다.

철수는 남은 시간 내내 막 달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끝날 때는 그 모둠에서 분위기를 잡고 한창 신이 났다. 이 모둠을 담당하던 4명의 선생님이 이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다. 이 장면을 지켜본 4명의 선생님이 수업 연구회에서 이야기하니까, 다른 모둠만 보고 있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철수가 어디 한 둘 인가? ‘아,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 깨어나게 할 수 있구나’ 하게 된다.

철수의 담임선생님이 “1학년 2학기 때부터 부모님 사이가 나빠지면서 별안간 무슨 일만 있으면 반항하고 그렇게 되었다. 요새 부모님이 성당에서 하는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다녀오시더니 사이가 괜찮아진 것 같다. 그래서 한동안 이야기 하면 들은 척도 안하더니 요샌 다시 대화가 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수업 연구회 안에서 철수가 수업 시간에 깨어난 장면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철수와 관련된 매우 풍부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C란 무엇인가?

다시 철수 얘기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굳이 철수를 분류하자면 A, B, C 중에서 C에 해당한다. 그런데 철수를 왜 C라고 보는지 우리가 그를 이해하는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철수를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C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쉬운 것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철수에게 쉬운 것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가르치면 그의 심정이 어떨까? 아마 미치고 환장할 것이다. 결국 철수의 입장은 '자신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다'로 바뀐다. 특히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사정이 더 악화된다. 밤 10시까지 잡아놓는다. 미친다.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없으면? 학교를 떠나야 된다. 지금 많은 인문계 고등학교들을 보면 그런 아이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1학년 3~4월 사이에 10개가 넘는 반 중 아예 한 개의 반 정도 아이들을 털어 내거나 전학을 보낸다.

그런데 우린 앞에서 철수가 영희와 선생님 사이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봤다. 이 장면을 꼼꼼하게 새겨볼 필요가 있다. 철수가 많은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아무 것도 안한 것은 아니고 배움의 경험을 그냥 날날로 쌓아만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영희가 한마디 거들고 선생님이 한마디 더 거든 순간, 그래서 철수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바로 그 순간, 쌓여 있던 여러 경험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 한 번 연결되면 급격히 연결되고 정리가 짝 된다. 철수가 1시간 넘는 수업시간 동안 짝 나갔다는 것은, 그동안 철수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많은 배움의 경험들을 모아내기 시작했고, 한 번 모아내기 시작하니 까 정리가 되고 튀어 오른 것이다.

이 과정의 핵심적인 고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 '쉬운 것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수가 '**내가 배우겠다!**'고 **맘을 먹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가 안 되는 아이들을 붙잡고 뭘 열심히 하지만 결과가 좋지는 못했다. 이제 철수가 깨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06년도에 수업 연구회를 몇 번 하다가 이를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위와 같은 관점으로 C를 이해하는 데는 한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다.

이 시대 A는 대부분 가짜다

철수가 어떻게 깨어나는지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영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학교 차원에서는 이 과정에서 영희 엄마가 문제를 제기한다. 대체 영희는 언제 자기 공부를 하느냐고. 그 답을 찾아보자.

창문을 열면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온다. 폭을 좁게 하면 바람이 빠르게 들어온다. 활짝 열면 바람이 느리게 들어온다. 이것을 물리에서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한다. 근데 지금 이 원리를 물리 시간에 선생님이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철수는 답답하다. 그래서 그것을 옆의 영희에게 '야, 근데 그게 왜 좁아지면 빨라지고, 넓어지면 느려져?' 하고 묻는다. 그럼 대개 우리 시대의 A인 영희는 '그게 베르누이의 정리야' 라고 대답한다. '베르누이의 정리가 뭐데?' '응 좁아지면 빨라지고 넓어지면 느려지고' '그거 똑같은 말이잖아'. 이 시대의 A가 대부분 가짜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이것이다. 대부분의 것들을 그냥 외우고 있다. 왜 그런지 설명할 능력이 없다. 더군다나 철수와 같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게 아이들 탓이 아니다. 앞의 상황에서 선생님이 철수에게 다가가 '야! 뭘 따지고 그래. 그냥 외워!' 라고 하면 철수는 주눅이 들어 말문이 막히고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영희는 우쭐해서 앞으로 웬만한 것은 다 외워 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에서 3등급 밖에 못 받는다.

반성을 한 요즘에는 전혀 다르게 접근한다. 선생님이 영희에게 다가가 '지금 철수가 던진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가 철수가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너는 베르누이 정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될 거야. 모둠 내에서 같이 궁리해 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C가 모르는 부분이 교과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수학으로 말하면 정리나 공식에 해당 되는 부분들이다.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하거나 증명하기가 제일 어렵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야만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A들은 지적으로 허당이다.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의문이나 호기심도 잃어버렸다.

2.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된다고 5명을 자퇴시켰다

모두들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한다. 사고치는 아이들이 이해는 안 되고, 그렇다고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바뀔까? 혹시 겉으로만 잘 길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 깊은 내면의 힘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쉬운가?



이 장면을 '설치미술'로 이해하는 데 5년 걸렸다.

이지 않고 잘 길들여지기 십상이다. 아니면 무기력에 빠진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해보자.

주먹을 휘둘러 친구 이빨을 부러뜨린 철수가 학년팀에서 감당이 되지 않아 교장실로 불려왔다. 전에는 '더불어 살아가려는 이우학교에서 어떻게 폭력을 쓸 수 있느냐, 타이르는 담임선생님에게 대들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아이는 위세에 눌려 주눅이 들고 머리를 조아린다. 반성문도 열심히 쓴다. 그러나 철수의 마음속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철수는 늘 잘난 체 하며 자기를 무시하는 영호를 못 마땅해 했는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멍청하다고 아이들 앞에서 놀려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게다가 친구를 무시하고 놀리기까지 한 영호는 나무라지 않고, 자기만 잘못했다고 몰아치는 담임선생님에게 더 화가 났다. 게다가 교장선생님까지 나서서 찍어 누른다. 이제 꿈쩍 못할 상황이라 포기하고 깨갱한다. 그런 철수의 마음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지만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성하는 척 고개도 숙이고, 죄송하

다는 말도 어쩔 수 없이 한다. 반성문도 다시 쓰지 않을 만큼 요령껏 쓴다. 이제 눈치껏 대충 살자고 마음먹는다.

교장인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한 것인가? 학년팀에서 대들던 아이를 고분고분하게 만들었다고 흐뭇해 할 것인가? 철수는 차분해지기커녕 더욱 열 받고, 쌓인 것이 많아서 몇 달만에 파출소에서 찾아와야 할 만큼 사고를 친다. 또, 몇 달 후에는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되어 자퇴를 시켰다. 그렇게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5명이 되었다. 각각의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 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회한이 생겼다. 그래서 사고치는 아이마다 낚시터에 며칠씩 데려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아이들과 속내를 나누게 되자, 내가 그동안 아이들을 찌그러뜨려서 점점 큰일을 저지르도록 내몰았으며 결국은 내쫓았다는 것을 알았다.

2007년에 이런저런 노력으로 아이들을 조금 이해하고부터는 많이 달라졌다. 교장실에 불려온 철수에게 차분히 차 한 잔을 대접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한 다음,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먼저 영호에 대한 분노, 담임선생님에 대한 분노를 읽어 준다. ‘그 때 철수가 화가 많이 났었구나.’ 그 한 마디에 철수의 분노는 바로 가라앉는다. ‘영호 이빨은 어떻게?’하면 철수는 바로 친구 걱정을 한다. 친구 걱정을 하는 철수의 마음을 살짝 격려한다. 친구 걱정은 부모님 걱정으로 넘어간다. 지난 번 건으로 부모님이 힘드셨는데 이번 일로 얼마나 상심을 하실까? 교장과 철수는 함께 부모 걱정을 한다.

이제 철수는 현재의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막가는 상황에 오기까지 지난 몇 년을 돌아본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면서 철수는 깨어난다.

어떻게 보면 사건·사고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내면과, 타자(친구들, 선생님, 부모님)와 마주하게 된다.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된다. 전에는 아이를 조사하고 다그쳤다. 반성문을 쓰게 하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등 반성을 강요했다. 그러면 아이는 핑계를 대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내면의 성장이 지체되거나 왜곡되었다. 반면에 교사가 마음으로 전하는 공감과 위로, 격려, 자극의 메시지는 아이로 하여금 자기 내면의 두려움, 불안, 분노, 슬픔과 마주하게 한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아이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사유하게 되며 성장 동기가 형성되고, 내면의 힘을 키우게 된다.

우리는 그 아이들로부터 그것을 배웠다. 우리가 특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원래 어떠해야 할까’, ‘선생님이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야 할까’, ‘아이들의 성장이란 도대체 뭘까’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끌어안고 보살피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만이 내면의 힘이 성장한다. 그 힘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세상과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키우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한다.

3. 내 생각을 100% 관철시키려 했다

학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구성원들과 합의를 해야 한다. 그것도 내 생각대로! 그것이 관철되면 선생님들에게는 남의 일이 되고, 논란이 되면 또 되는 일이 없이 시끄럽기만 하다. 어찌 할 것인가?



교사회에서 교장은 내 생각의 30%를 양보하며 듣기가 너무 힘들다.

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 것 같다. 대개는 자기 확신이 강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이 있을 때, 대개는 그를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운데 쟁점이 생기면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 그런데 교육공동체

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구성원들과 합의해야 한다. 논의가 길어지면 구성원들과 비전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원래의 쟁점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저의 경우도 그렇고, 주변의 학교를 봐도 그렇다. 그렇게 구성원들이 서로 100%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려 하는 학교는 계속 분란이 일어나 진도가 잘 안 나간다.

제 경험을 정리해서 말하면, 70% 정도에서 타협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단위 학교 차원에서 혁신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하는 것 같다. 때늦은 교훈이기도 한데, 초기 3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무척 시끄러웠다. 아직도 주변에 시끄러운 학교들이 많다. 예를 들면 배움의 공동체다, 프레네학교다부터 시작해서 발도르프학교니 뭐니 여러 얘기들이 참 많다. 그런데 다 자기 이데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해서 나타난 문제다. 중요한 것은 부족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가능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3년 정도 해보고 나면 50~60% 정도는 진도가 나가는데, 100%를 하려고 하다가 20~30%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까지 학을 떼게 하는 우를 범하는 것 같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30%의 양보가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100%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도 반박할 궁리만 하게 된다. 그런데 30%는 양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회의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의견만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모을 수 있게 된다.

4.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려 했다

좋은 시설, 잘 짜인 교육과정, 훌륭한 교사들이 아이들을 성장시킨다고 믿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감당할 몫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야성을 죽일 수 있다.

이우학교가 6년 전에 재정결함지원을 받게 돼서 중학교는 학비가 없고,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낸다. 그 이전까지는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1.7배로 시작했다가 일 년에 적자가 4억, 5억씩 났다. 그걸 메우기 만만치 않으니, 결과적으로 학비가 3배까지 올라갔다. 귀족학교 소리도 들었다.

지금은 이우학교 학생들의 구성이 다양해졌지만 초창기 6년 동안엔 있는 집 자식들 위주였다. 아이들이 아쉬운 게 없다. 욕망이 좌절되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졸업해서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먹고살 대책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발버둥 쳐봤자 취직이 힘들 것이란 것도 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어른들이 너무 많다. 10대가 요새 중요한 소비자 아닌가. 10대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면 매우 감각적으로 접근해야한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게임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하지만 공부는 안한다. 그리고 힘든 일, 도전 절대 안한다. 흔히 말하는 무기력한 아이들이다.



이우학교 겨울 풍경, 좋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말했던 경우는 사고치는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 가르치기가 오히려 쉽다. 그런데 이 뻔질거리며 매사 무기력한, 그래서 자기 진로조차도 확정 지으면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결정을 늘 유보하는, 그 아이들이 제일 힘들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상황에도 이우학교의 가장 큰 도전 상대는 있는 집의 뻔질이들이다.

그런데 6년 전에 성남 구시가지에 ‘함께여는 청소년학교’라고 방과후 학교를 세웠다. 그 지역의 중학교 1학년 중에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5명씩 추천받았다. 있는 집의 무기력한 뻔질이들과 달리, 이 아이들은 엄청난 상처와 좌절을 견디면서 살아왔다. 한 몇 년 정도 열심히 하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도 안 걸렸다. 이 아이들은 따뜻한 손길이 거의 닿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다. 그래서인지 이우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1~2년 해야 겪는 변화를 이 아이들은 잠깐 사이에 이뤄냈다.

이우학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다양해 졌지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사회적 자본도 풍부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가능했던 교육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아니 거꾸로 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었다.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했다면 더 쉬웠을 것이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지역이 어렵다’, ‘아이들이 개판이다’, ‘부모가 어렵다’, ‘학교의 제도가 뭘 못하게 한다’, ‘교육청 간섭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조건이 훨씬 교육적이다.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이렇다. 소위 말하는 ‘있는 집 자식 뺑질어들’이 제일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그놈들을 제대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온실을 부수고 험한 도전에 나서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5. 악당을 잡으려 했다

끝으로 이야기할 것은 제가 학교를 떠나고 난 후에 깨달은 것, 그래서 늘 아쉬운 부분이다.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다.

학교에는 늘 뒤에서 봉창 뚫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의 뜻을 모으고 싶으니 처음 몇 년 동안 이분들에게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분들 상태도 나빠졌고, 관계도 나빠졌다. 학교를 떠나고 나서 뒤늦게 깨달은 것은 제가 공을 들였다 했지만, 말로만 그런 척 했지, 사실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나도 나를 모른다. 사람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무슨 마음인지 귀신 같이 안다. 그렇게 많은 시간 공을 들였지만 독을 뿌려뒀으니 결과는 뻔하다.

이제야 때 늦은 반성으로 돌아보면 그 때 그 많은 시간과 정성을 되는 일에 쏟았다면 그 일도 성과가 있었을 것이고, 힘들어한 그분들도 변화가 있었으리라. 그분들이 늘 뒤에서 봉창을 뚫게 되기까지는 많은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그 동안 교직원생활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우도 있고, 가족 관계나 주변 여건이 어려워져서 꼬이다 보니, 비뚤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교장이 자꾸 뭐라 하면 더 방어적이게 된다. 오히려 그냥 놔두고, 준비된 사람들끼리 열심히 하다보면 그분들도 고민이 된다. 지켜보다가 여건이 좋아지면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 그럴

때 주변에서 조금씩 거들면 된다.

덧붙이자면 애들에게는 다양한 선생님이 필요하다. 못된 선생님, 독한 선생님, 개기는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학교가 온실이 안 되고 적당한 비바람이 들이치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아이들의 성장판이 골고루 자극된다. 그러니 일부 악역을 담당하는 선생님, 미워하지 말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분들이 학교가 추진하는 사업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검증 역할을 한다. 뒤에서 봉창 뚫는 사람이 없을 때, 교장이나 추진 주역들이 꼭 오버하게 되어 있다. 사람 수준이라는 것이 뻥해서 결국 건방을 떨고, 막 밀고 나가다 보면 사고를 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적절한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분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우리끼리 열심히 하다보면 봉창 뚫는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새롭게 봉창 뚫을 사람을 스카웃해야 한다. 조직의 건강을 위하여!

대안교실의 성공적인 운영전략



강 신 일

(서울대원고등학교 교장)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교장 연수



학교 내 대안교실 성공적인 운영 전략

대원고등학교
교장 강 신 일

1

발표 순서

- 운영 개요
 - 2014학년도
 - 2015학년도
- 운영 배경과 동기
- 관리자 역할과 지원
 - 역할 분담
 - 운영 지원과 개입
 - 인식 공유와 공감대 형성
-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언

2

운영 개요 (1) 2014학년도

- '꿈바라기교실'
- 주 4일제 부분 운영제
- (1학기) 3일 오후, 1일 전일
- (2학기) 2일 오후, 2일 전일
- 협력기관 2곳(드림센터, 하자센터)
- 남학생 25명(2학년 19, 3학년 6)
- 예산 1,940만원(대안교실+구청지원)
- 학생 1인 77만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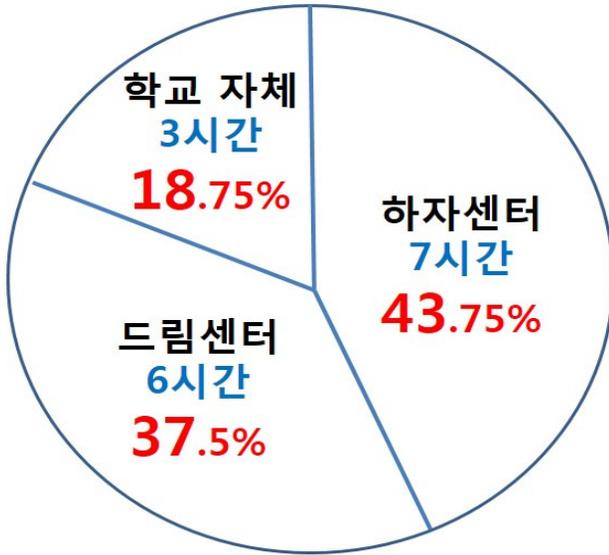
3

2014학년도 1학기 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1-4교시)	정규교과수업				정규교과수업		공방형 프로젝트활동 (7시간)
오후	진로집단상담 (90분)	목공 동아리 (5명)	미래 탐색 동아리 (12명)	창업 동아리 (8명)	동아리 및 봉사활동	악기 배우기 (90분)	
	성문화교육 (90분)					텃밭 가꾸기 (90분)	
장소	드림센터	드림센터				우리학교	하자센터
시간	13:30~16:30	13:30~16:30				13:10~16:00	10:00~18:00

4

1학기



위탁 운영
13시간
(81.25%)
611만원
(54.9%)

2014학년도 2학기 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1-4교시)	정규교과수업 참여		정규교과 수업참여	3가지 활동 중 선택 참여		
	점심식사-이동	주간 미팅		정규교과 수업참여	정규교과 수업참여	정규교과 수업참여
오후	진로동아리 (3시간)		동아리 및 봉사활동			
	목공	미래 탐색		창업	리더십 스피치 (공통, 90분)	텃밭 가꾸기 (90분)
장소	드림센터	우리학교		하자센터	우리학교	
시간	13:30~16:30	13:10~16:00		09:50~16:30	13:10~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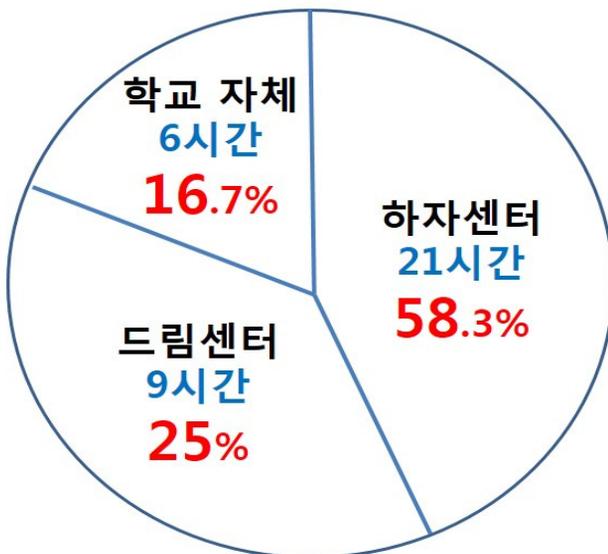
2학기



위탁 운영
17시간
(85%)
338만원
(40.8%)

7

2014학년도



위탁 운영
30시간
(83.3%)
949만원
(48.9%)

8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요일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내용	비고
진로 동아리	목공	월	13:30~16:30	드림센터	지도강사	공통 (선택)
	미래탐색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선택 심화프로그램	
	창업				드림센터 3인(각 동아리별 1인)	
리더십 스피치	화	13:00~14:30	우리학교 1층 영어교과실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 향상 SLS스피치연구소 강사 2인	공통 (전체)	
뚝발가꾸기	화	14:40~16:10	우리학교 뚝발	자연친화 및 협동성 증진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강사 1인	선택	
연극활동	화	14:40~16:10	우리학교 4층 수학교과실	자신감 증진 및 협동성 향상 연극배우 강사 1인	선택	
Plan-B 프로젝트 활동	목	10:00~16:30	하자센터	자기관리능력 향상과 진로탐색	선택	
	금	10:00~16:30		하자센터 6인		
컴퓨터활용자격 취득준비활동	목	13:10~16:00	우리학교 3층	직업기초역량 함양	선택	
	금	13:10~16:00	진로진학정보실	한일컴퓨터학원 강사 1인		

- 경험해보았다.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도움 받을 곳이 적지 않다.
- 협업이 시너지를 부른다.
- 학생의 생각, 마음을 읽을 수 있다.
- 학교 자체 운영에 자신이 생겼다.
- 체험과 진로탐색 중심의 프로그램 조직과 운영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 자금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 운영자 중심으로 생각한다.
- 학생의 마음을 열기가 어렵다.
-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과 아이디어가 빈약하다.
- 학급 담임교사의 이해, 협조가 약하다.
- 운영예산이 부족하다.
- 운영의 지속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 열정가의 희생이 요구된다.

Positive

- 활기와 의욕이 생긴다.
- 다양한 체험의 도움을 느낀다.
- 자신의 진로에 적극적이 된다.
- 뭔가 해보고자 시도한다.
- 대인관계에 적극성을 보인다.
- 자신이 경험할 일에 관심을 보인다.

Negative

- 학급에 돌아가서 힘들어한다.
- 활동, 프로그램의 의미에 무관심하다.
- 자극적, 오락적 재미에 매몰된다.
- 소속감의 혼란, 불안감이 크다.
- 자기 노출과 표현에 소극적이다.
- 상담, 치유의 기회가 부족했다.

운영 개요 (2) 2015학년도

- '진로탐색과정'(2학년)
- 전일제 교육과정·1개 학급 개설
- 1학기-정규교과 15, 대안교과 19
- 2학기-정규교과 18, 대안교과 16
- 협력기관 5곳(직업위탁교육+청소년전문)
- 남학생 2학년 1학급 35명
- 예산 3,661만원(대안교실+기타지원4)
- 학생 1인 104만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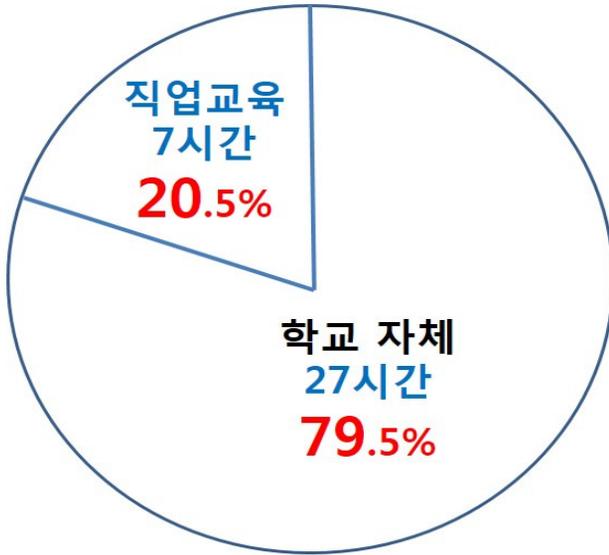
11

2015학년도 1학기 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월	화	수	목	금			
I	(출석점검 및 안전교육)	고전	영어1B	영어1B	창체진로활동 (연극예술강사)		
II	직업 I A반:한식조리	스포츠와 문화	한문 I	고전	스포츠와 문화		
III		영어1B	정보	집단 집단	영어1B		
IV	B반:컴퓨터활용	생활수학	창체 (자율활동)	상담 상담 A B	자기관리		
점심식사							
V	직업 II A반:바리스타 B반:항공정비	악기 연주	리더십 개발A	창체 (동아리활동)	적정 터발	리더십 개발B	악기 연주 (우쿨 렐레)
VI		(기타)	창체 (봉사활동)	기술 가꾸기	한문 I	생활수학	
VII		프레젠테이션 실무					

12

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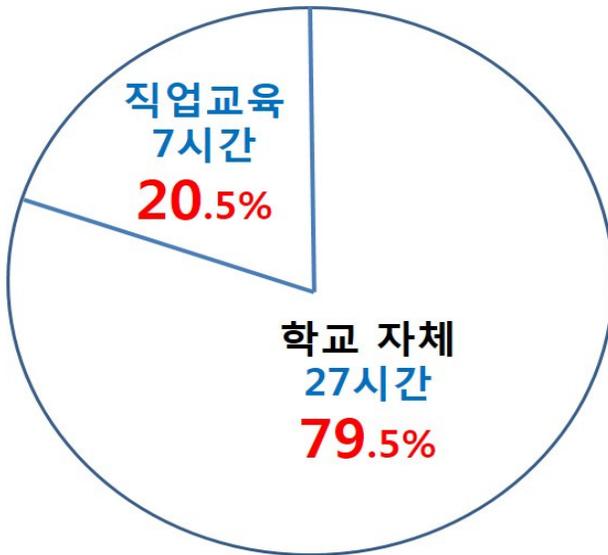


위탁 운영
7시간
(20.5%)
611만원
(29.1%)
1학기 지출
2,096만원

2015학년도 2학기 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월	화	수	목	금
I	(출석점검 및 안전교육)	스포츠와 문화	스포츠와 문화	한문 I	창체(진로) (연극예술감사)
II	직업 I - A반 : 한식조리 - B반 : 칵테일조주	한문 I	고전	교양 (실용경제)	정보
III		실용영어2B	고전 (모듬지도&멘토링)	실용영어2B	생활수학
IV		실용영어2B (모듬지도&멘토링)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실용영어2B (모듬지도&멘토링)	생활수학 (모듬지도&멘토링)
점심식사					
V	직업II - A반 : 바리스타 - B반 : 바리스타	힐링·감성훈련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체험·생활기술	인성·자기개발 집단상담
VI		기타 & 우쿨렐레 난타 미디어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적정 기술 터밈 개발 벽화 가꾸기 미술	리더십 개발 행복 훈련 어울림 프로그램
VII		진로탐색과 설계		독서와 토론/ 쇼하자(월 1회)	자기관리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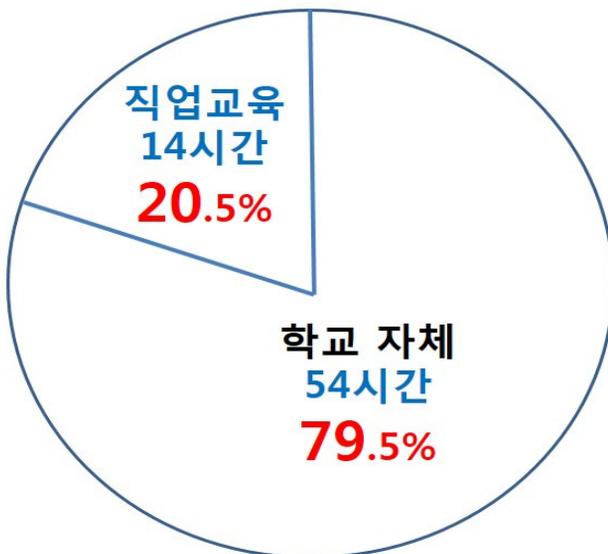
2학기



위탁 운영
7시간
(20.5%)
1,073만원
(29.3%)
1년 예산
3,661만원

15

2015학년도



위탁 운영
14시간
(20.5%)
949만원
(48.9%)

16

주요 프로그램

구분		과목별 수업/ 활동 내용	시간		
학교 자율 과정 생활기술 (대안 교과)	직업 기술체험 (월)	직업 I·II (위탁교육) - 자격증 취득 및 직업 직무체험/ 위탁교육 - A반 : 한식조리(오전 3시간), 바리스타(오후 3시간) - B반 : 칵테일주조사 (오전 3시간), 바리스타 (오후 3시간)	월요일 전일 7시간 -금란요리제과제빵학원 - 국제호텔전문학교		
	힐링· 감성훈련 (화)	기타와 미디어	기타 연주 심화활동, 다양한 미디어로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성과물 제작 활동	화 5~6교시	
		우쿨렐레	우쿨렐레 연주 및 감성 훈련, 학년말 합동 작은 음악회 준비	희망에 따른 선택활동	
		난타	난타 활동을 통한 힐링과 감성 훈련, 여고 관악반 합주실 활용		
	체험· 생활기술 (목)	적정기술	자연친화, 환경에너지 등 생활기술 원리 습득 및 실습 심화	목 5~6교시	
		덧밭가꾸기	학교 덧밭 조성, 썸채소 중심 덧밭 영농, 도시농법 이해 활동 심화	희망에 따른 선택활동	
		벽화미술	일상공간과 환경에 대한 미학적 이해, 벽화 활동을 통한 애교심 함양		
	인성· 자기개발 (금)	리더십개발 집단 상담	행복훈련	스피치 및 경청 기술, 자기소개, 면접기법, 생활글쓰기 훈련 심화	금 5~6교시
			어울림 프로그램	행복감을 높이는 자기 성찰과 공동체 훈련	희망에 따른 선택활동(리더십개발과 집단상담)
			자아정체성, 자기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집단 및 개인 상담		
진로탐색과 설계(1)		직업위탁과정 준비, 중단지 진로계획 수립, 다양한 인사 초청 강연	화 7교시		
독서와 토론/쇼하자(1)		도서/영화의 자유 독서와 포럼, 공동현안회의, 월 1회 작은 발표회	목 7교시		
자기관리(1)		담임교사와 함께 자기 생활·시간관리법 이해 및 활용 활동	금 7교시		



운영 배경과 동기

- 자발적 비진학 선택 학생 존재 인식
 - 수능 비지원 학생 수 증가
 - 학교 부적응 현상을 보는 시각
- 다양한 교육과정 필요성
 - 학생의 Needs 맞춤
 - Win-Win의 교육과정
- 활기찬 학교 만들기 첫 걸음

19

[참고] 우리학교 교육과정의 진화

▪ 2014학년도



20

[참고] 우리학교 교육과정의 진화

▪ 2015학년도

1	공통 과정			
2	인문사회	자연이공	체육	진로 탐색
3	인문사회	자연이공	체육	직업 위탁

21

[참고] 우리학교 교육과정의 진화

▪ 2016학년도

1	공통 과정			진로 탐색
2	인문사회	자연이공	체육	직업 기초
3	인문사회	자연이공	체육	직업 위탁
	진학 트랙			비진학 트랙

22

관리자(교장) 역할과 지원

- **운영 역할 분담**
 - 관리자 : 운영 의지 고수, 공감대 형성, 유지
 - 운영(전담)팀 : 운영인력 구성, 전권 부여
- **운영 지원 및 개입**
 - 운영인력 지원 : 담임교사, 운영전담교사
 - 수업 및 업무 부담 경감
 - 예산 지원(일반고 전성시대+구청 등)
 - 직접 개입 : 추경, 이견 조정
- **인식 공유와 공감대 형성**

23

운영 발전 계획

-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 구축**
 - 전담부서 배치 : 각 학년부+지원부서
 - 담임교사 중심 운영
 - 운영 매뉴얼 구축 : 누구나 담당 가능
- **3개년 연계 교육과정 운영**
 - 진로탐색(1)-직업기초(2)-직업위탁(3)
 - 진로희망에 따른 유연한 과정 변경
- **학교 자체 운영 능력 제고**
 - 직업기술교육 인프라 구축(실습시설 등)
 -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험 축적

24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언

▪ 성공적 운영 가능 요인

학교 관리자의 현실 인식과 확고한 운영 의지

학교 구성원의 인식 공유와 공감대 형성

교육당국의 정책 및 예산 지원

인력 확보 및 학교밖 교육협력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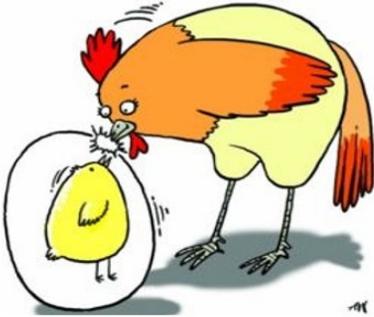
25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언

- **전향적인 현실 인식과 공유를 하라.**
 - 학생의 다양성에 주목, 방법을 찾기
- **열정보다는 시스템에 의존하라.**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법을 구사하기
- **학교의 교육 책무성을 강조하라.**
 - 우리 아이는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 갖기
- **학교 밖 자원을 적극 활용하라.**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과 협력하기

26

줄탁동시 啐啄同時



啐啄同時

병아리가 울음소리를 내면 어미닭이 껍질을 깨트려준다.
새끼의 시작은 동시에, 그리고 끝은 동시에.
이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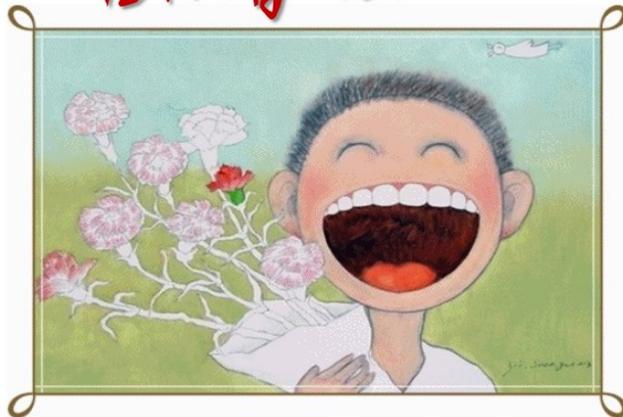
송나라 때 [벽암록]에 나오는 공안으로서
'줄탁동기(啐啄同機)'라고 하며,
'줄탁동시(啐啄同時)',
'줄탁지기(啐啄之機)'라고도 합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알 속에서 부리로 쪼는 것을 '줄(啐)'이라 하고,
어미 닭이 이를 돕기 위해
밖에서 쪼아 주는 것을 '탁(啄)'이라 하는데,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啐 : 우는 소리 줄, 쪽쪽 빨 줄
啄 : 쪼 탁
同 : 같을 동
機 : 때 기, 시기(時期) 기

27

감사합니다 ^*^



대원고등학교 교장 강신일
010-5465-9371
ksilee13@sen.go.kr

28

행복과 많은 꿈이 자라는 행복한 교실

- 인천송천초등학교 -



공 속 자

(인천송천초등학교 교장)

365일 모두가 행복한 송천 ☺

대안교실 운영사례



www.sc.icees.kr
인천송천초등학교

1

왜 운영하였나?

1.1 학교 현황 ☺

◆ 학생 현황

2015.09.01 기준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5	5[1]	4	4	3[1]	3	24[2]
학생수	117	111	80	79	60	76	523
급당 평균	23.4	22.2	20.0	20.0	20.0	25.3	21.8

◆ 교직원 현황

2015.09.01 기준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	도움교사	계
1	1	30	6	11	49

1.1 학교 현황 ☺



교육복지, 탈북, 다문화 학생이 많음

불안한 가정환경으로 정서 불안정



교육환경 차이로 교육격차가 심함

맞벌이부부비율(80%)이 높아 가정교육지원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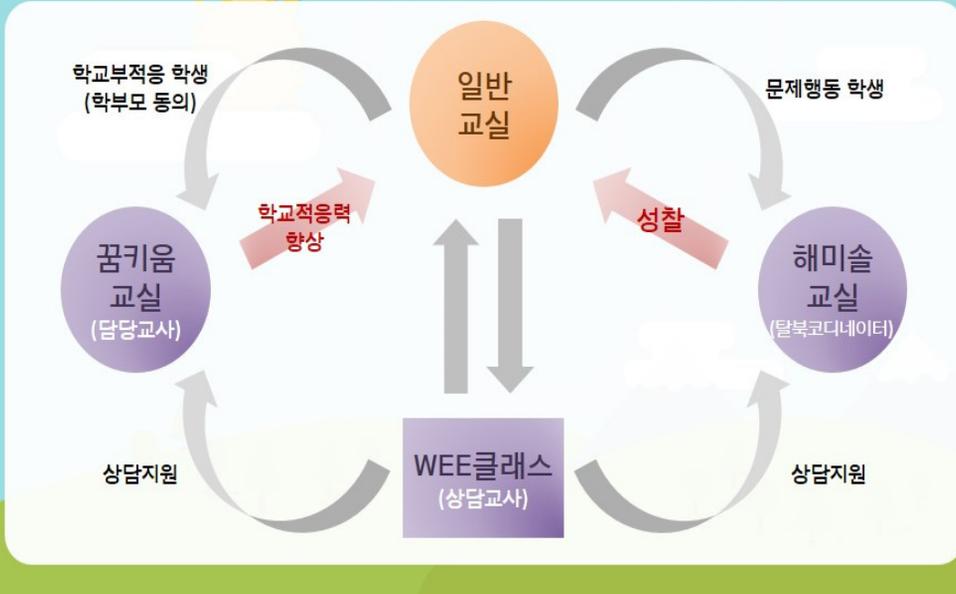
1.2 목적 ☺

1. 모든 학생이 **소외됨 없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춤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대안교육의 기회 제공
2. 부적응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별도의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학교 규칙을 준수하게 하여 **올바른 학습 분위기 조성**

2

어떻게 운영하나?

2.1 대안교실 운영 흐름도



2.2 방침

1. '부분제 운영 모형' 으로 오후에 편성하여 실시하되, 학기별로 운영하는 '꿈키움 교실' 과 상시로 운영하는 '해미솔 교실' 로 운영하며, Wee클래스 상담교사가 지속적으로 상담활동을 지원, 관찰, 관리
2. '꿈키움 교실' 대상자는 담임교사의 의뢰를 통해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학생들로 운영
3. 대안교실 운영 담당자는 정규 교사가, 프로그램 운영은 상담교사,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외부 전문 강사 등을 활용

2.3 대상자 선발 과정 ☺



3.1 주요 프로그램 ☺

심성수련 및 정서지원

자기 이해(14차시), 감정 다루기(25차시), 자기 강화(11차시), 비전 세우기(34차시)

미술치료

나만의 아바타 만들기, 난화, 숨은 그림 찾기, 집단 만다라, 점토 놀이 등

음악치료

치료사 반주에 맞춰 노래, 드럼 서클, 파트너와 함께 악기 연주 등

상담치료

개인상담, 학부모 상담 등

3.2 프로그램 운영 ☺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저학 년	자기 교실 수업				심성수련 및 정서지원	미술치료 또는 음악치료	
고학 년	자기 교실 수업				심성수련 및 정서지원	미술치료 또는 음악치료	

3.3 운영 일반 ☺

1. **기간** : 연중 상시, 정규교과 시간외
2. **장소** : 도서관(09시~12시), 해미솔 교실(13시~14시)
3. **담당** : 탈북 코디네이터
4. **대상** :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학생,
학생선도위원회 결과 대안교실 필요 학생
5. **프로그램 운영** : 자기성찰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



4.1 심성수련 및 정서지원 ☺



마음 터놓기



게임을 통한 마음 가꾸기

4.2 미술 치료 ☺



라포 형성하기



되돌아보기

4.3 음악 치료 ☺



음악 이야기



내 친구 리듬 악기

4.4 특별 프로그램-승마힐링 ☺



4.4 특별 프로그램-신체활동 ☺



4.5 공연 모습 ☺



4.5 공연 모습 😊



4.5 공연 모습 😊





5.1 운영 효과 ☺

꿈키움교실(대안교실) 자아개념검사 (SCI-11) 지수 분석자료



자아개념검사 (SCI-11) 결과 평균 5점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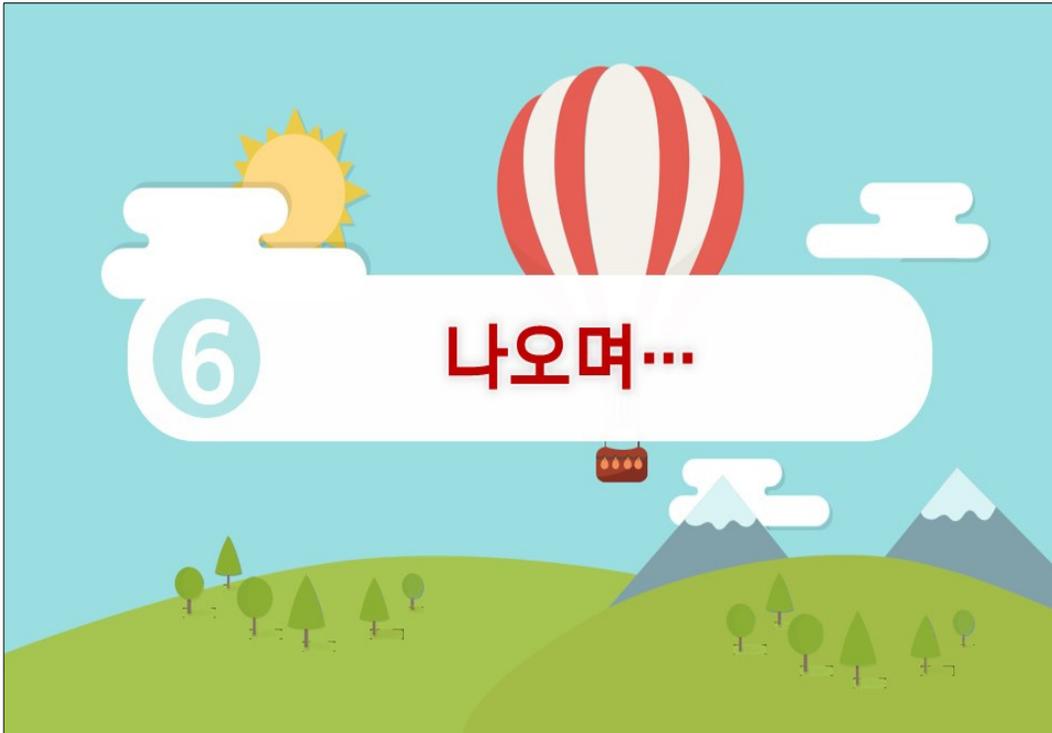
5.1 운영 효과 ☺

이름	하위요인	인지적자아			정의적자아		사회적자아		신체적자아		총점/수준
		학업	언어	논리/수리	성격/정서	도덕	친구관계	부모관계	신체능력	신체외모	
강○○	T점수(1학기/2학기)	21/28	32/32	41.2/54	29.3/40	47.7/48	38.2/41	55.8/52	56.3/59	58.5/51	21.9/23.3
	백분위(1학기/2학기)	0.2/1.4	3.9/3.9	1.7/16.1	1.7/18.1	43/42.5	18/19.6	72.6/57.7	72.6/60.4	78.8/53.9	낮음/낮음
신○○	T점수(1학기/2학기)	60.2/66	43/38	66.3/61	49.4/54	57.7/58	59.2/49	63.1/64	37.6/40	41.5/68	61.8/69.4
	백분위(1학기/2학기)	84.1/94.8	24.2/10.6	94.5/87.4	48/65.8	78.8/79.8	81.6/47.8	90.3/91.6	11.5/96.4	21.2/69.4	중간/높음
안○○	T점수(1학기/2학기)	52.1/47	51.2/44	55.4/51	43.8/43	59.3/58	42.8/44	49.9/48	42.6/59	41.5/49	42.1/43
	백분위(1학기/2학기)	57.9/38	54/27.1	69.2/55.7	27.4/22.7	81.6/81.5	24.2/20.8	50/41.2	24.2/60.4	21.2/47.3	중간/중간
김○○	T점수	31.8/42	32.7/43	41.2/50	20.7/38	30.8/40	16.9/30	16.1/31	13.8/50	17.9/38	0.1/6.2
	백분위	3.6/22	4.5/23	18.4/50	0.2/11	2.9/16.4	0.1/2.4	0.1/2.6	0.1/51.4	0.1/4.5	매우낮음/낮음
김○○	T점수	41.3/47	44/44	37.9/51	39/43	41.9/48	41.5/40	36.7/48	56.3/59	48/49	24.2/33.9
	백분위	18.4/38	27.4/27.1	11.5/55.7	13.6/22.7	21.2/42.5	21.2/16.8	9.7/41.2	72.6/60.4	42.1/47.3	낮음/중간
제○○	T점수	38.6/34	43/56	51/48	58/59	57.7/61	44.2/49	54.3/57	56.3/50	32.3/47.3	50/53.1
	백분위	13.3/5	24.2/73.3	54/43.9	78.8/79.4	78.8/86.2	27.4/43.7	65.5/74.7	72.6/51.4	3.6/43.7	중간/중간

5.1 운영효과 ☺

분석결과

1. 정의적 자아(성격, 정서, 도덕), 사회적 자아(친구관계), 신체적 자아(신체외모)에서 점수 상향
2. 인지적 자아(학업, 언어, 논리/수리)에서는 점수가 낮아짐
3. 인성과 사회성은 향상되었으나 학습부진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향상되지 않음



6.1 나오며... 😊

처음 대안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자 주위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학습권 침해다.. 낙인효과다....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교실에서 빼내면 학업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등등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대안 교실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의가 늘었고 대기학생까지 생겼다
 교사들의 만족도도 매우 늘었다. 이제는 없어질 것을 걱정한다. 한 아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실천은 대안교실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다.



학교행복플러스 「꿈·마음·성장교실」

- 강원목호중학교 -



주 향 숙

(강원목호중학교 교감)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목호중 대안교실 운영사례

-꿈·마음 성장교실-

목호중학교 교감 주향숙



운영 방향

- 공교육 내에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다양한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적응을 지원함
- 학교 부적응 학생, 위기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만의 특기와 적성을 찾게 함
- 다양한 체험 및 직업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찾도록 하며, 다양한 심리 치료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운영 현황

- 1) 운영 기간 : 2013 ~ 2014 ~ 2015학년도
- 2) 운영 지원 : 교육부 및 강원도교육청 지원
- 3) 명 칭 : **묵호중학교 대안교실, 꿈.마음 성장교실**
- 4) 선정 대상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수업 거부 및 장기 결석 학생
 -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수업 거부 및 장기 결석 학생
 - 학습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생
- 5) 선정 방법
 - 1차 선정 :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 추천 / 본인 희망
 - 2차 선정 : 학생 동의 및 학부모 동의서 제출 학생

대안교실 팀 구성 및 역할

- **학생부장** : 대안교실 업무 총괄 기획, 학생 선발 및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행정업무 등
- **특수교사** : 대안 교실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 관리, 언어 소통 문제 및 심리 장애가 있는 학생 상담 관리
- **학생생활지도 담당 교사** : 학생 미래 직업 체험교육 추진 대안 교실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 관리
- **전문상담사** : 학생 심리 치료 및 상담, 심리 치료 교육 추진, 강사 초빙 및 학생 지도 관리
- **교육복지사** : 학생 직업 체험 교육, 레저, 심리 공감 프로그램 계획 추진, 교육장소 섭외 및 학생 복지 상담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4. 대안교실 ‘꿈.마음 성장교실’ 교육활동

교육 활동	교육 내용	담당 교사
심리치료 활동	음악, 원예치료, 연극놀이 자아존중교실, 분노조절교실	전문상담 교사
직업체험 활동	제과제빵, 도예 체험 해양직업, 천문직업 체험 태양광자동차, 가구 만들기	교육 복지사
레저교감체험 활동	볼링, 승마, ATV, 사격체험 문화영화 감상	특수교사

운영 프로그램

- **심리치료 분야** : 음악치료 교실, 원예치료 교실, 연극놀이치료 교실, 자아 존중 교실, 분노조절 교실
- **직업체험 분야** : 제과 제빵 체험, 도예 체험, 해양 관련 직업 체험, 천문 관련 직업 체험, 태양광 자동차 체험, 가구 만들기 체험
- **레저·교감 체험 분야** : 볼링 체험, 영화 관람(시련을 이겨낸 사람들/ 명량), 승마체험, ATV(산악 오토바이) 체험, 사격 체험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한 주요 체험 활동

- 동해시 청소년 상담 센터 : 다양한 심리치료강사 지원
- 강릉 청소년 상담 센터 : 자아존중감 향상 교실 운영
분노 조절 프로그램
- 지역사회 레저시설 : 승마체험, ATV 체험, 사격체험
볼링 체험
- 대한요리학원 : 제과 제빵 체험
- 동해 원예 가구 공단 : 가구 만들기 체험
- 동해 청소년 문화 센터 : 도예교실, 원예교실
- 영월 별마로 천문대, 영덕 청소년 해양 환경 체험 센터,
횡성 우리별 천문대, 횡성 숲체원 등 : 천문 직업 관련
교육, 해양 관련 직업 체험 교육, 숲 관련 직업 체험

운영 방법 및 프로그램

- 1) 무학년제 대안 교실 형태로 운영
- 2) 정규 교과 시간 중 오후 시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
- 3) 1년 장기 운영
(매주 월, 수, 목요일 오후 시간대 운영)

운영 프로그램 (1학기)

1학기	학	수	목
	심리치료 프로그램	삼성 품장학재단 동영상 편집기술	직업 체험 및 공강 프로그램
1주차	심리치료 - 음악치료	카메라의 작동원리 및 종류	스포츠 체험 - 불경 -
2주차	시험대비 집중 학습기간	시험대비 집중 학습기간	시험대비 집중 학습기간
3주차	1회 고사	1회 고사	1회 고사
4주차	어린이 날	카메라의 조작 방법	스포츠 체험 - 불경 -
5주차	심리치료 - 음악치료	"	"
6주차	"	카메라 주변기기를 활용한 촬영기술	직업 체험 - 제과 제빵체험 -
7주차	집중력 향상 - 태양열 자동차 만들기 -	놀이를 통한 사진 촬영실습	"

운영 프로그램 (1학기)

1학기	학	수	목
	심리치료 프로그램	삼성 품장학재단 동영상 편집기술	직업 체험 및 공강 프로그램
8주차	집중력 향상 - 태양열자동차만들기 -	편집프로그램에 대하여 배워보기	직업 체험 - 제과 제빵체험 -
9주차	"	스토리가 있는 영상 만들기	스포츠 체험 - 사격 -
10주차	심리치료 - 원예치료	시나리오 장면 구성하기	"
11주차	"	촬영하기	"
12주차	시험대비 집중 학습기간	시험대비 집중 학습기간	시험대비 집중 학습기간
13주차	2회 고사	2회 고사	2회 고사
14주차	심리치료 - 원예치료	편집 및 시사회	시연을 이끈 위인 - 영화감상 -

운영 프로그램 (2학기)

2학기	학	수	목
	심리치료 프로그램	삼성 공강학재단 동영상 편집기술	직업 체험 및 공공 프로그램
1주차	심리치료 - 미술치료	동영상 제작과정	소통 교감 프로그램 - 승마 . ATV -
2주차	"	동영상 카메라 조작방법	"
3주차	"	뮤직 비디오 카메라 동선 확인하기	"
4주차	"	뮤직비디오 촬영하기	"
5주차	자아존중 프로그램	편집 및 감상하기	소통 교감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
6주차	추석연휴	시험대비 집중 학습기간	시험대비 집중 학습기간
7주차	1차 교사	1차 교사	1차 교사
8주차	자아존중 프로그램	독립영화 제작하기	직업 체험 - 가구 만들기 -
9주차	심리치료 - 연극놀이	독립영화 시나리오 문법	"

운영 프로그램 (2학기)

2학기	학	수	목
	심리치료 프로그램	삼성 공강학재단 동영상 편집기술	직업 체험 및 공공 프로그램
10주차	심리치료 - 연극놀이	스토리보드 제작 및 촬영	직업 체험 -가구 만들기 -
11주차	"	독립영화 촬영하기	직업 체험 - 도자기 만들기 -
12주차	시험대비 집중 학습기간	시험대비 집중 학습기간	시험대비 집중 학습기간
13주차	2회 교사(3학년)	2회 교사(3학년)	2회 교사(3학년)
14주차	분노조절 프로그램	독립영화 촬영 및 편집하기	시련을 이긴 위인 - 영화감상 -
15주차	"	보충 촬영 및 편집하기	직업 체험 - 도자기 만들기 -
16주차	심리치료 자이툰색 인성 프로그램	편집 및 시사화	"
17주차	시험대비 집중 학습기간	시험대비 집중 학습기간	시험대비 집중 학습기간
18주차	2회 교사(2학년)	2회 교사(2학년)	2회 교사(2학년)
19주차	심리치료 자이툰색 인성 프로그램	대안 교실 참가 후기 쓰기	힐링 캠프 해양 관련 직업 체험

운영 프로그램 (주간)

구분	월	화	수	목	금
1 교시		교과	수업		
2 교시					
3 교시					
4 교시					
5 교시		대안 교실 심리 치유 직업체험		대안 교실 직업 체험 레저·공감체험	
6 교시					
7 교시					

- 대안 교실 참가 학생들의 학습결손은 월, 수, 금에 실시하는 기초학력 교실에 참가하여 부족한 학과수업을 보충함

심리치료 활동_미술치료



대안교실 '꿈.마음 성장교실' 미술치료



심리치료 활동_미술치료



심리치료 활동_자아성장 분노조절 프로그램



대안교실 '꿈.마음 성장교실' 음악치료



심리치료 활동_승마교실



심리치료 활동_승마교실



심리치료 활동_놀이연극치료



심리치료 활동_음악치료



심리치료 활동_미술치료



심리치료 활동_음악치료



대안교실 '꿈.마음 성장교실' 목공실습



직업체험 활동_목공교실



직업체험 활동_중장비 체험



직업체험 활동_중장비 체험



직업체험 활동_원예체험 교실



대안교실 '꿈.마음 성장교실' 원예치료



직업체험 활동_원예체험 교실



레저 . 교감 체험 활동



레저 . 교감 체험 활동



마음 챙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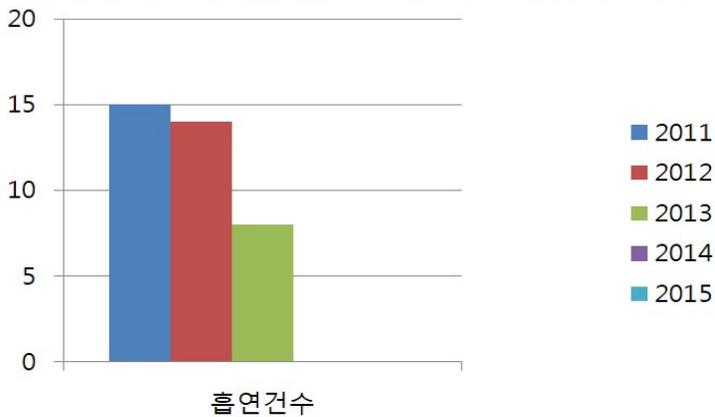
강원 영동지구 대안교실



대안교실 '꿈.마음 성장교실' 운영 성과

최근 5년간 흡연 적발 건수

2011(15건), 2012(14건), 2013(8건), 2014(0건), 2015(0건)



대안교실 '꿈.마음 성장교실' 운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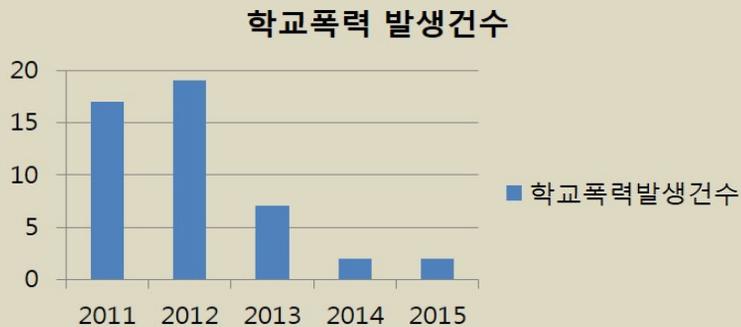
- 교권침해 발생 감소
- 2011(5건), 2012(4건), 2013(2건), 2014(1건), 2015(0건)



대안교실 '꿈.마음 성장교실' 운영 성과

목호중학교_학교폭력 발생건수

2011(17건), 2012(19건), 2013(7건), 2014(2건), 2015(2건)



기대 효과

가. 학업 중단 학생 감소

- 학교 부적응 및 장기 결석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학생들의 특기 및 재능을 기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됨

나.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 건수 감소

- 대안 교실 운영을 통해 학교 부적응 학생의 심리치료를 실시하여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가 감소 할 것으로 기대 됨

다. 대안 교실 참가학생 학업 참여도 향상

- 대안 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 및 학업 참여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꿈.마음성장교실’ 을 운영한 후에~

- 기존의 1명의 교사가 담당하던 대안교실을 4명의 교사가 한 팀으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얻음
- 팀 단위의 대안교실 운영으로 담당교사 개인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각자 전문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 학생지도에 활용함
- 학생 부적응 학생들이 점차 감소하였고, 학습분위기가 좋아짐으로 인해 학교만족도가 향상됨

목호중 보도자료

- 1) 2014. 3. 19. 내일신문
‘학생자치와 동아리 문화가 학교를 바꾼다. 동해 목호중학교’
- 2) 2014. 8. 14. 강원도 교육청 보도자료
‘목호중학교 우수프로그램 소개’
- 3) 2014. 8. 15. EBS 교육방송 「손범수의 행복한 교육세상」
‘신뢰는 소통에서 나온다. 동해 목호중학교’ 편
- 4) 2014. 10. 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웹진」
학생이 주인인 학교 목호중학교
- 5) 2014. 12. 8. 강원도교육청 교육신문 <강원 교육 맑음>
‘혁신이라는 것, 아이들의 얘기에 귀 기울였더니
학교를 대하는 학생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 6) 2015. 7. 2 한국교총/한국 교육 신문사 <새교육>
‘교권 vs 인권, 해묵은 논쟁은 그만~ 학생자치와 동아리가 학교문
화를 바꾼다! 강원 행복+++학교 동해 목호중학교’



성장 · 나눔 · 평화의 배움공동체

- 서울삼각산고등학교 -



옥 현 중

(서울삼각산고등학교 교장)

직업기초과정반(대안교실) 운영 사례

삼각산고등학교장 옥 현 중

I. 학교 현황

1. 학업중단 학생 수

연도	학년	재적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수	학업 중단 비율 (%)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							
					자퇴					퇴학	유예	면제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13	1학년	289	19	6.57	1		15	2	1			
	2학년	300	13	4.33		1	11		1			
	3학년	306	3	0.98			1			2		
	계	895	35	3.91			27			2		
'14	1학년	300	21	7.00		1	15		1	2		
	2학년	290	13	4.48			12		1			
	3학년	292	5	1.71	1		2	1		2		
	계	882	39	4.42	1	1	29	1	2	4		
'15	1학년	301	13	4.31			5	2	6			
	2학년	299	8	2.67			6		2			
	3학년	283	5	1.76					5			
	계	883	26	2.94			11	2	13			

2.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연도	과목	국어	수학	영어	비고
2014(290명)		18.7	21.9	39.2	기초학력미달률(%)
2015(299명)		19.0	24.7	24.2	"

3.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 현황

연도	학년	부적응 사유 자퇴				퇴학		계
		학업 관련	대인 관계	학교 규칙	기타	학교 폭력	학칙 위반	
'13	1학년	15						15
	2학년	11						11
	3학년	1					2	3
	계	27					2	29
'14	1학년	15					2	17
	2학년	12						12
	3학년	2					2	4
	계	29					4	33
'15	1학년	5			6			11
	2학년	6			2			8
	3학년				5			5
	계	11			13			24
	총계	67			13		6	86

II. 직업기초과정반(대안교실)의 필요성

1. 수업시간 잠자는 아이들
2. 가정 문제
3. 학교 부적응
4. 일반학급 분위기 고려
5. 맞춤형 기초과정 학습
6. 자존감 고취와 피해의식 극복의 필요성
7. 3학년 진급 시 직업위탁반 편성
8. 공동체의식과 책임감 부족

Ⅲ. 직업기초과정반(대안교실) 운영 팀 구성

1. 2011년 개교 때부터 대안교실 부분 운영(주 3일, 오후제)
2. 2013년 1학년 부장 중심으로 1학년 담임 토론 → 전체 교사 토론
3. 1학년 부적응 학생 개별 상담
4. 2014년 독립된 하나의 학급으로 편성·운영(전일제)
5. 교육부 예산신청 및 지원(2014년 - 4천만원, 2015년-2천만원)

Ⅳ. 직업기초과정반(대안교실) 교육 프로그램

1. 2학년1반(총원 18명) 프로그램 내용

가. 자기 긍정성 회복을 위한 직업체험 인턴십(지역사회 연계)

- 인디학교/에듀닥터, 조흥카월드(자동차정비), 미조네일, 커피바실리아, 천사 유치원, 금빛가람인테리어, 뮤지션, 조명, 경호, 희노애락(패션)

나. 기초 학력 증진을 통한 학교 적응력 강화

- 국어, 수학, 영어, 일본어, 사회, 과학, 일본어, 음악, 미술, 댄스

다. 학급 공동체 활동을 통한 책임감과 협동심을 중심으로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인식 고양

- 특강 : 성윤리 교육, 금연교육, 감정 코칭, 뇌 교육 및 역경극복사례(지구 시민 이야기)
- 체험학습 :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문화, 역사, 예술의 공간을 탐방
- 봉사활동 : 농촌봉사활동, 지역의 아동센터 및 아동도서관과 MOU 체결과 지속적인 돌봄 봉사활동, 연탄배달 봉사 활동 및 사회적 기업 봉사활동 등

- 매주 4회의 스토리텔링 시간을 통해 자기를 다시 만나도록 함
- 체육 방과 후 및 점심 운동 시간 확보
- 뮤지컬 : 1학기 형성된 공동체의 기초위에 2학기에 뮤지컬 수업을 진행하고, 학년말 공연

라. 치유를 위한 상담 활동

- 전문 자원 상담활동가(마음 놀이터 소장, 황영화)의 1년간 지속적인 학생 및 학부모 상담

2. 공개수업

가. 목적

- 대안 교실에서 아무도 자지 않은 수업의 모델 연구 및 공개 수업 실시
-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연구

나. 내용 및 일정 : 공개 수업 총 8회 실시

순번	수업 과목	세부과목	주제 및 내용	교수학습방법	참관 교사	참관 학부모
1	과학탐구 영역	환경과학	청소년과 음주 문화 : 알코올발효실험	모둠별 협력 학습 실험 활동	4명	1명
2	음악	음악의 이해	힙합문화의 이해 : 랩으로 말해요요	모둠별 협력 학습 라임으로 랩만 들어 볼러보기 힙합댄스 시연	2명	1명
3	문학	문학	수업시간에 잠 좀 자게 해줘요	토론 배틀	4명	1명
4	사회탐구 영역	지역사회의 이해	고용 계약서 작성의 실제	학생 활동 (계약서 작성)	1명	
5	영어	영어	독해 문항 풀이	모둠별 협력학습	3명	1명
6	사회탐구 영역	한국의 사회와 문화	학생별 관심 사회 주제 발표 수업	개인별 발표	6명	2명
7	영어	영어	빙고 게임으로 익히는 단어	모둠협력 학습게임	4명	2명
8	수학	창업과 수학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손익 계산 게임	모둠협력 학습게임	4명	1명

3. 시간표 및 교육 과정의 특징

가. 2학기시간표(빛금 칸 : 담임교사가 담당 혹은 팀티칭을 하는 시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사탐2 스토리텔링 및 자기계획에 의한 프로젝트 학습	문학 독서	환경과학 스토리텔링 및 자기계획에 의한 프로젝트 학습	환경과학 스토리텔링 및 자기계획에 의한 프로젝트 학습	직업체험 인턴십 과정 1. 4단위: 창의체험활동의 진로 활동 2. 2단위: 동아리 활동: 진로 동아리 진로잡스 (학생 개별적으로 별도의 동아리 활동을 원할 경우 오후에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함. 단, 나이스 상에는 진로잡스 동아리로 기록됨)
2	운동과 건강	사탐2	문학 글쓰기 : 백〇〇 그림책 읽기 : 한〇〇 *분반 교차 지도	수학 창업과 통계 이〇〇	
3	실용영어II-A 윤〇〇, 송〇〇 직업영어용어 기초회화 파닉스	사탐1			
4		운동과 건강	일본어	문학 일반학급과정	
5	음 악 미 술 댄 스	일본어	사탐1	실용영어II 일반과정	
6		수학 일반학급과정 엑셀 프로그램 익히기	HR	실용영어II-B 1학기 : 특강 및 영어 단어 게임 2학기 : 뮤지컬 정〇〇/ 황/〇〇/담임	
7	수학 1:1 수준별지도	문학 토의 토론 (다양한 형식의 학급회의를 통해 토의 토론 수업)			

나. 교육과정요약

단위수	미적분	영어	문학	관광 일본어	사탐1	사탐2	체육	(미술)	(댄스)	(음악)	환경과 학	창체 (진로/ 동아리/ 자율)	합계
본교 교사	1	1	1	2	2	1	2				1		11
강사	2/1	2 (수준별)	2					(2)	(2)	(2)		4/2/1	15
담임		2	2			1					1	1	7
단위수 합계	4	5	5	2	2	2	2	(2)	(2)	(2)	2	7	33

※ 영어 과목의 경우 2학기에는 영어독해와 작문으로 과목이 변경됨

V. 직업기초과정반(대안교실) 운영상의 어려움과 극복

1. 담임의 역량 의존도 매우 높음 → 간접 지원교사 확보
2. 학생들의 근태(지각, 결석, 결과 등) 관리로 인한 담임 피로도 증가
3. 교육과정 운영상의 강사와 예산의 확보
→ 강사 채용 시 학급담임 의견 적극 반영
→ 강북구청의 예산 지원
4. 동료교사들의 인식도(예산 지원의 역차별)
5. 관리자의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

VI. 직업기초과정반(대안교실) 운영 성과

1. 운영효과

가. 2학년 1반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친밀도와 출석, 지각 등의 횟수가 긍정적으로 변화함

무단결석(회)		무단 지각(회)		무단 조퇴(회)		무단 결과(회)	
1학년때	2학년때	1학년때	2학년때	1학년때	2학년때	1학년때	2학년때
205	136	687	498	134	8	161	19

나. 학교 전체 학업 중단율이 낮아졌음

	연도	'13	'14	'15
학업중단비율 (%)	1학년	6.57	7.00	4.31
	2학년	4.33	4.48	2.67
	3학년	0.98	1.71	1.76
	계	3.91	4.42	2.94

다. 2학년 1반의 구성으로 2학년 때 학업 중단 비율이 낮아 졌음

	연도	1학년	2학년	감소폭
학업 중단비율 (%)	'14학년도2학년 학업중단 변화추세	6.57	4.48	32%
	'15학년도2학년 학업중단 변화 추세	7.0	2.67	62%

라. 2학년 연도별 학적변동 상황 비교

- 학적변동사항 : 전출, 자퇴, 휴학, 위탁
- 전출 : 가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전출 보다는 학교분위기 기피 현상 및 징계에 의해 퇴학을 피하기 위한 전학 등이 다수 있다고 분석되어 통계에 포함

학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1학년	31	44	35	28	25
2학년		20	26	13	13

※ 학교가 전체적으로 안정되어서 학적변동사항이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2학년의 경우 1학년에 비해 많은 폭으로 감소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2. 직업기초과정반(대안교실) 운영 성과

- 가. 학생들의 자존감이 고취되고, 긍정적인 자세로 변함
- 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진전됨
- 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학교생활 적응에 상당한 기여를 함
- 라. 공동체 의식이 함양됨
- 마. 꿈이 없던 학생들이 장래를 위해 생각함
- 바. 학교 교육력 제고에 도움

3. 직업기초과정반(대안교실)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 가. 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수임
- 나. 봉사와 희생정신이 강한 학급 담임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의 확보
- 다. 학급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체 교사의 이해와 협력
- 라. 1학년 담임들과 학년부장의 협조
- 마. 예산 집행에 따른 일반학급과의 역차별
- 바. 일반학급과의 차별성으로 인한 학생, 담임 간의 갈등 우려
- 사. 대안교실반 담임의 수업 시간 배려
- 아. 대안교실반 담임은 전년도 1학년 담임에서 배정
- 자. 복수 담임제 필요함

교육, 마을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 서울영일고등학교 -



심 건 섭

(서울영일고등학교 교장)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사례 보고

영일고등학교 교장 심 건 섭

1.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가. 학교 구성원의 합의

2014년 과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이 교사에게 벌을 받다가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벌을 부과해서라도 공부를 시키는 열성적 선생님이 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이 사건을 법률적으로나 여론으로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은 선생님을 폭력적인 괴물로 그렸습니다. 법은 선생님을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피의자로 대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니, 체벌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자칫 교육의 포기로 연결될 수도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지도할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 점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교사는 생활교육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활동했습니다. 20명이 넘는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4회에 걸쳐 교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학생회 토론, 학급별 토론을 10여 차례가 넘게 진행했습니다. 학부모들도 따로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영일고형 생활교육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체벌을 금지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주의 경고를 거쳐 교육장에서 일시 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격리된 학생은 성찰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성찰실에 반복적으로 오는 학생은 상담과 전문적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치료를, 대안이 필요한 학생은 대안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학교의 적절한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학생은 징계제도를 통해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모두 참여한 토론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합의 형태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성코칭 연수를 1주일 동안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변화된 규정과 제도에 대해 훨씬 철저하게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대안교실의 필요성 공유

대안교실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안교실 운영을 위해 선생님의 노고와 많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철학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해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50%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라고 말 하는 것이 어색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기본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공부는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공부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공부하지 않을 거면 조용히 있으면서 친구들 학습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칙을 엄격히 적용해서 빨리 다른 곳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움직이는 학교들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뒤쳐진 아이들을 챙기는 학교로 어려운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쏠리면 그 학교는 정상적 기능이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안교실에 대한 내부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배제 전략을 구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 말고는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계 학교가 배제 전략을 아무리 철저히 쓴다 하더라도 상위권과 중위권 학

생의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잘 나가는 특성화고를 갈 학생이 배제전략을 잘 쓰는 일반 인문계 학교로 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생을 많이 내보내 하위권 학생 수가 너무 줄면 내신의 불이익 때문에 그 학교의 매력은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지원해서 온 학생들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성적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잘 하는 아이에서 공부에 아예 뜻이 없는 아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역할 분담을 적절히 잘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문제입니다.

다. 실현 가능한 방안 찾기(마을과 함께)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데, 학교의 인력이나 재정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교육청을 욕하면서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운명입니다.

일반계 인문고교는 마을의 학교입니다. 학교가 속한 마을이나 자치구에게 책임과 권한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 이런저런 주문만 하게 할 수도 없고, 역으로 학교에 재정지원만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함께 나누어 공동 책임으로 마을의 아이들을 잘 길러야 합니다.

마을은 학교보다 훨씬 풍부하고 다채롭습니다. 교육적 전문성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갖고 있는 학교가 마을의 풍부함을 학교 교육에 접목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입시체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마을에서 삶의 의지를 배우고 삶의 기술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진 : 영일고등학교 마을결합형 대안교실 강사들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함께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 있는 모습>

2. 어떻게 운영하였는가?

가. 밴드반



<사진 : 청청청에서 진행되는 밴드반의 연습 장면>

마을축제 및 봉사활동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해온 목2동 지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간과 장비 등을 지원받고, 강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강사는 목2동 청소년 활동에서 충분히 검증받은 사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강사카드와 강의 계획서를 검토하여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 모집이 된 것에 한해 강사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운영하였습니다. 4월에 5명 1개 반으로 출발했다가 2학기에는 2개 반 10명으로 확대 운영되었습니다. 목2동 마을축제 공연을 계획했다가 실제 수능이 다가오면서 포기한 것이 아쉽습니다.

나. 연극치료반

밴드반처럼 목2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1학기 4월에 출발할 때 1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습니다. 단 1명을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민 끝에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에 8명으로 그 인원이 늘어 학교의 결정이 타당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1년의 활동을 모아, 11월 9일 3학년 학생들이 졸업 작품을 공연하였습니다.



<사진 : 3학년 학생들의 졸업 공연과 출연 배우 기념 촬영>

다. 생활요리반

목2동에서 마을 결합형 대안교실을 운영하다가 자체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한 유형의 프로그램입니다.

영일고 프로그램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요일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을 1~2개 하다가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제안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학생 제안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입니다.

학생들의 제안을 받은 목2동 센터(청소년 카페 청청청) 선생님이 학교와 협의하여 강의를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영일고 학부모님들이 자원봉사로 운영에 결합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랑 프로그램 책임 선생님이 함께 메뉴를 정하고 당번 학생들이 미리 장을 봅니다. 당일, 선생님과 어머님들이 학생들을 도와 요리를 합니다. 요리의 양은

그 시간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정도로 풍족하게 합니다.



라. 미디어반

목2동 지역에서 4월에 4명으로 출발해서 5명이 완주한 프로그램입니다. 영화 보기에서 제작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 학생들이 제작에 부담을 느껴

감상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학생들이라면 마을 기록 등 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 있었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 반이었습니다.

마. 도예공방

목2동에 소재한 나무 도예공방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4월에는 희망하는 학생이 없어 강의가 개설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농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추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 반은 매우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9명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10월 모기동 마을축제에는 그 동안 만든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배운 것을 마을에 돌려준 것입니다.



바. 진로주치의

진로주치의는 매우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진로주치의를 양성하는 과정부터 학교가 함께 하였습니다. 2014년 말엽에 강서구 마을에서 진로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은 주민을 만났습니다. 주치의 개념을 진로상담 및 지도에 접목하려는 문체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학교가 김장 나누기에 초대하였습니다. 주민은 매우 큰 감동을 받고 갔습니다.

지난 겨울에 진로주치의를 교육하는 사업이 서울시 마을사업으로 강서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에 강서구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의를 영일고 교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일고의 마을 결합형 대안교실에 대한 상을 제시하고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바탕으로 강서구 공모사업으로 진로독서 프로그램을 영일고에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 복싱교실

학생들이 제안해서 추가된 프로그램입니다. 대안교실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다며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복싱교실입니다. 마침, 학교 선생님 한 분도 그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와 6월에 추가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관련한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들에게 안성맞춤인 프로그램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질 관리가 무척 힘듭니다. 학교 교사 중에서 전담 교사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교사의

취미 생활과 연결해서라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생각입니다. 담당자 오후 수업을 배치하지 않고 프로그램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 헬스교실

학생들이 제안해서 추가된 프로그램입니다. 중간에 대표가 변경되는 등 프로그
램 질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극도의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학생이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해서 급하게 서둘러 만들었는데 골치 아픈 존재
가 되고 말았습니다. 2학기 10월말부터 불성실했던 학생들을 모두 정리하고 성실
히 운동한 학생들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쌓아온 과정 없이 대화와 서류 검토만으로 강사와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또는 신뢰하는 파트너의
보증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도시농부

강서구청의 도움을 많이 받아 개설 운영된 프로그램입니다. 강서구청의 힐링텃밭 사업을 통해 농사지를 땅을 분양받았습니다. 관련한 사업비는 강서구청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강서구의 교육 프로그램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농기구나 작물 관리 등에 있어 강서구청의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명의 교사가 배치되었습니다. 1명은 영일고 교사로 농업에 관심이 많은 교사입니다.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인솔하고 팀워크를 단단히 다져서 매우 활기차게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1명은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김포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 농사를 진두지휘하셨습니다. 학교 자체 역량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분간은 도움을 계속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학생 중에서 2명 정도는 농업을 진로와 연결시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활력을 찾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차. 택견

영일고등학교 퇴직 교사가 영일고등학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4월에 1명의 학생으로 출발했다가 2학기에 4명이 참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메트 등을 구입하여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부하기가 싫어 도망치듯 신청한 학생들이 실전 위주의 강도 높은 교육에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대안학교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진 : 태권 수업 모습(영일고 교내)>

3. 마을과 학교의 다양한 협력 방안들

가. 강서소방서 안전교육 및 직업 체험

소방관이 꿈인 학생이 소방서 체험을 제안하였습니다. 학생들도 모두 좋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제가 문제인식을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생들 부모님의 연세가 이제 취약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가정에서 쓰러지시면 누가 살려야 하는 지를 물었습니다. 소방관 직업체험과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서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관련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협력적이었습니다. 소방안전체험 교육, 심폐소생술, 그리고 소방관에게 필요한 체력측정 등을 매우 즐겁게 하고 왔습니다.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받은 학생들은 이를 확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7월 학교축제에 강소소방서 교육팀을 초청해 심폐소생술 실습을 했습니다. 2,000여명의 강서양천지역 학생들이 학교 축제에 오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학생들이 체험단을 모집하고 소방서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는 안전교육이 많이 강조되고 활성화되었지만, 저희는 학생과 교사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스스로 교육을 기획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을 찾아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진짜 교육에 가까워진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 심폐소생술 실습 장면>



<사진 : 소방안전 이론편 교육>



<사진 : 소방관 직업 체험(신체능력 측정) 학교축제 심폐소생술 실습>



나. 마을 봉사활동

마을의 중요한 일이나 과제를 학교의 일로 받아들이고 자기 책임을 다 하려는 관점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확립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부터입니다. 마을에서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려는 학생 동아리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흐름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사진 : 미술반 학생들이 마을 계단을 예쁘게 색칠하고 있음>



<사진 : 지역아동센터 남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는 영일고 학생들(마을에서 남학생과 놀아줄 형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학교가 받아 진행된 활동)>



<사진 : 마을에서 할 일을 찾아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축제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모습(2013년 영일고 축제)>

다. 마을경제 탐색(목3동 시장 체험)

가까이 있는 이웃의 소중함과 훌륭함을 알게 하고 지역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접하면서 다양한 진로를 생각해보도록 하자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정보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목3동 시장을 검색하였습니다. 시장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와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통화를 하였습니다. 취지를 설명하고 방문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상인연합회 회장님은 매우 기뻐하면서 환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상인연합회 회장님과 지도교사의 경제교육과 장보기 체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인연합회 회장님은 시장 현황과 재래시장 이용이 지역경제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의 보람과 애환도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술과 장사를 배워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시장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지도교사인 저는 지역화폐, 지역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경제 분야의 새로운 물결을 소개하면서 내 생활과 연결해 생각해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장보기 체험은 학교축제 뒤풀이를 혁신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동문회 지원비에 지도교사가 돈을 보태 짜장면 등을 먹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문회 지원금에 지도교사가 조금 보태 학생 1인당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누어 먹거나 나누어 가질 물건을 정해진 시간에 사서 센터로 가져오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협상을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물건을 선택한 이유와 함께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자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지만, 여럿이 뭉쳐 고가의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장보기를 나가자마자 상인회장님이 시장 방송으로 우리 행사를 소개하였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뿌듯하게 장을 보았습니다.

이 활동은 1년을 평가하면서 다시 해보고 싶은 최고의 활동으로 선정되어 연말에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척 즐겁고 새로운 추억이 된 것입니다. 이후 추석 시장축제에도 결합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그 때는 우리 동아리에 국한하지 않고 참가자를 공개모집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시장의 활력과 인심을 학생들이 느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진 : 재래시장이 정부 지원으로 고객지원센터를 대부분 갖고 있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사진 : 목3동 시장 고객지원센터(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대표의 마을경제 교육(영일고 학생 20여명이 수강)>



<사진 : 장보기 체험1>



<사진 : 장보기 체험2>



<사진 : 시장축제 인절미 만들기 진행>



<사진 : 시장축제 전통가요 부르기>

라. 모기동(목2동) 마을 축제

마을과 결합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마을의 필요와 요구를 학교에 전하면서 다른 동아리로 확산되었습니다. 목2동 마을축제는 13년 첫해부터 미술반의 마을 벽화 그리기, 밴드반 댄스반의 공연, 학년부의 자원봉사자 모집과 참여 등으로 집단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화학실험반, 힙합반 등이 추가로 결합하였습니다. 2015년 학교축제에는 목2동 지역 주민, 특히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 교사의 참여는 학부모와 학교장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고 이후 제도화 상설화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발전되었습니다.



<사진 : 2014년 목2동 축제에서 마을 동생들(양화초 학생들)과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하고 있는 화학실험반 학생들 모습>



<사진 : 2015년 목2동 마을축제 행사준비를 하고 있는 영일고 학생들(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80여명의 학생들이 3개조로 스텝 역할 수행)>



<사진 : 영일고 대안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의 작품이 2015년 마을축제에 전시됨>



<사진 : 영일고 댄스반 학생들의 2015 마을축제 공연 모습>

마. 학교축제 함께 하기

학교축제를 마을과 함께 하려는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90년대에 학교 축제를 지명을 따서 ‘능안골¹⁾ 축제’라고 하였으며 마을주민들의 찬조와 참여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마을 공부방 학생들, 종합복지센터와 연결된 장애인들을 초청해 함께 축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축제는 동문과 지역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학교는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챙겨 보답 한다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태도와 인식은 일부 교사에 한정되어

1) 학교가 있는 마을의 옛 이름

나타났으나 현재는 영일고 축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사진 : 학교축제에 어르신을 초청하여 재미있는 실험을 나누는 과학실험반 학생들이>



<사진 :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기타반과 미술반 학생들의 모습>

바. 김장나누기

2013년에 1학년부가 주관하여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시작하였습니다. 등촌2동

과 목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할 학생을 모집하였습니다. 도시락 관련 비용은 학생이 부담하고, 도시락 준비는 학교 급식실에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후 노인체험, 어르신 동행 문화체험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3년에 학교 텃밭 가꾸기를 1학년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결합하였습니다. 텃밭에서 2모작으로 재배한 무와 배추를 기본으로 도시락 배달에 참여하는 학생과 부모님이 주축이 되어 김장을 담가 어르신들에게 배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학생회와 동아리가 합류하여 어르신을 위한 잔치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동문회와 학교법인까지 참여합니다.

2016년에도 2학년부가 주관부서가 되어 사랑의 김장 나누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진 : 2014 김장나누기 모습(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 급식실에서 김장을 담고 있음)>



<사진 :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학생 모습(2인 1조로 배달,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도시락)>

사. 마을기금과 국제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

2015년에는 생활지도부와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마을 기금을 조성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학생회, 인권동아리, 학부모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270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익금은 마을과 नेपाल 지진 피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시작은 2013년 학교축제였습니다. 바리스타반 등이 축제 기간 얻은 수익금을 마을 지역아동센터 등에 기부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참여한 학생회 대표와 동아리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자기 자신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피력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며 더욱 발전시켜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축제 기간에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돈을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큰 감동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 2015 마을기금 조성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 모습(2학년 부학생회장이 경매를 진행하고, 학부모 교사 이사회 동문이 적극적으로 응찰하고 있는 모습)>



<사진 : 2015 마을기금 조성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 모습(도예가인 엄마가 중심이 되어 운영한 체험 코너, 여기서도 수익이 발생함)>



<사진 :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는 모습(학생회 대표, 동아리 대표, 아동센터 어린이들,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 있음)>



<사진 : 축제에서 조성한 수익금 일부를 네팔 어린이 돕기 후원금으로 전달하는 모습(학생회장과 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한 아이들이 참여해서 전달함)>

아. 마을상생학교 함께 하기

짧게는 2013학년도부터 마을과 함께 하면서 형성된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공동 사업인 ‘마을 결합형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과의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학교안의 단위들(3개 학년부, 생활지도부, 연구부, 창의체험부 등)이 모여 영일고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대표는 영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모셔 함께 학교 일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일고추진단 실무 책임자는 마을상생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전체 사업을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 마을에서 열린 회의에 영일고 선생님들(학생부장, 2학년부장)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있는 장면>



<사진 : 마을학교를 양화초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 양화초 교장 선생님이 함께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영일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교운영위원장과 함께 마을학교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마을이 학교에 와서 진행한 '청소년 공상 테이블'에 참가한 영일고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여성분은 모두 마을 주민)>

교육, 마을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영일고등학교

● 목차

-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학교 구성원의 합의 / 대안교실의 필요성 공유 / 실현 가능한 방안 찾기
- 대안교실 어떻게 운영하였는가?
밴드반 / 연극치료반 / 생활요리반 / 미디어반 / 도예공방 / 진로주치의
복싱교실 / 헬스교실 / 도시농부 / 택견
- 마을과 학교의 다양한 협력 방안
강서소방서 안전교육 및 직업체험 / 마을 봉사활동 / 마을경제 탐색
마을축제 / 학교축제 마을과 함께 하기 / 김장 나누기 / 마을기금 조성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 / 마을상생학교
- 운영성과 및 느낀점

준비

1. 학교 구성원의 합의

- ◆ 어떠한 경우의 체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
- ◆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지도할 방안이 필요
- ◆ 생활교육 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활동
- ◆ 영일고형 생활교육 방안을 마련
 - ▶ 모든 체벌을 금지
 - ▶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주의 경고를 거쳐 일시격리
 - ▶ 격리된 학생은 성찰 프로그램을 이수
 - ▶ 성찰실에 반복적으로 오는 학생은 상담과 전문적 검사를 하고 조치
 - ▶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치료, 대안이 필요한 학생은 대안 프로그램을 이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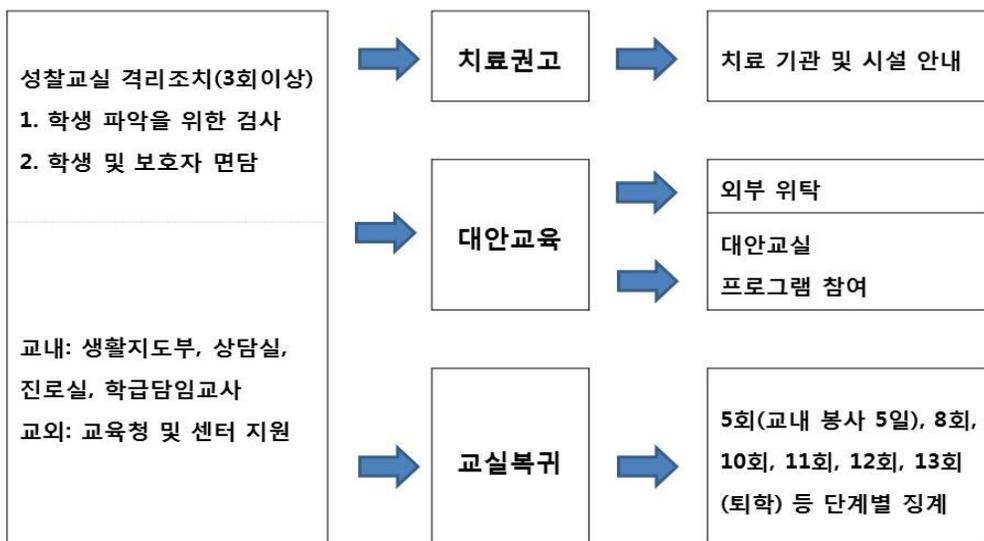
2. 대안교실 필요성 공유

- ◆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철학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
- ◆ 뒤쳐진 아이들만 챙기는 학교로 오해하여 어려운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내부 합의가 쉽지 않을 것
- ◆ 불편한 아이들에 대한 배제전략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귀결
- ◆ 우리 학교를 지원해서 온 학생들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모두가 함께 사는 길

- ◆ 학생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방향의 정책은 학교 업무를 과중한 부담
- ◆ 학교의 인력이나 재정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교사들이 부담을 줄이면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함
- ◆ 학교가 속한 마을이나 자치구에게 책임과 권한을 나눌 필요
- ◆ 교육적 전문성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갖고 있는 학교가 마을의 풍부함을 학교 교육에 접목
- ◆ 입시체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마을에서 삶의 의지를 배우고 삶의 기술을 배울 수가 있을 것

영일고 생활교육개념도

성찰교실 + 대안교실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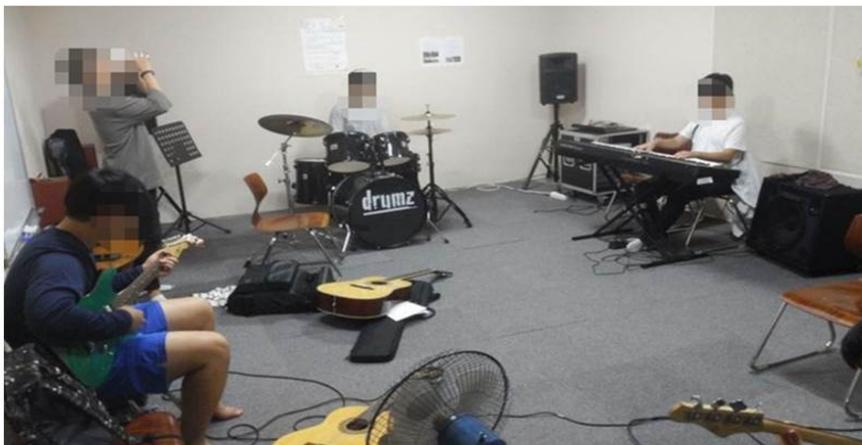
대안교실 마을과 함께 하는 이유

- ◆ 학교의 힘만으로 불가능
- ◆ 마을의 풍부함이 삶의 기술과 가치교육에 더 적합
- ◆ 교육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책임과 역할을 복원해야 함



대안교실 1. 밴드반

- ◆ 주1회 2개반 운영, 학생 5-6명으로 구성
- ◆ 마을에서 시설, 장비, 강사를 지원 받음
- ◆ 학생들이 마을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로 함



대안교실 2. 연극치료반

- ◆ 1학기 반과 2학기 반 등 2회 운영
- ◆ 마을 공간과 시설 이용, 강사는 마을에서 추천
- ◆ 소극적이고 자기표현이 부족했던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



대안교실 3. 생활 요리반

- ◆ 학생들의 요구로 운영 도중에 새롭게 개설한 프로그램
- ◆ 마을에서 공간, 시설, 자원봉사자 지원(학부모)
- ◆ 학교가 프로그램 운영비용 준비



회수	교육 주제
1	무엇을 함께 할까? 영화 선정하기
2	미디어의 이해, 영화1 함께 보고 이야기하기
3	영화의 이해 영화2 함께 보고 이야기하기
4	영화3 함께 보고 이야기하기
5	영화4 함께 보고 이야기하기
6	영화5 함께 보고 이야기하기
7	영화6 함께 보고 이야기하기
8	영화7 함께 보고 이야기하기
9	모듬별 패러디 영상 기획하기1
10	모듬별 패러디 영상 기획하기2
11	모듬별 패러디 영상 제작하기1
12	모듬별 패러디 영상 제작하기2

- ◆ 마을 도예공방을 이용
- ◆ 주1회 3시간을 한 블록으로 운영
- ◆ 강사비, 재료비, 시설이용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회당 2만원



대안교실 6. 진로주치의

- ◆ 마을 진로주치의 키다리아저씨와 함께 운영
- ◆ 마을에서 활동할 진로상담사 양성 교육에 학교가 참여
- ◆ 진로독서교육 등으로 협력사업이 확대됨



대안교실 7. 복싱교실

- ◆ 복싱을 하는 학교 교사가 추천하여 추가한 프로그램
- ◆ 대안교실을 희망하나 기존 프로그램에 만족 못한 학생 추가 수용
- ◆ 주1회 1일 3시간으로 운영



대안교실

8. 헬스교실

- ◆ 장기결석 학생이 희망하여 추가한 프로그램
- ◆ 대안교실을 희망하나 기존 프로그램에 만족 못한 학생 추가 수용
- ◆ 주4회 1일 3시간으로 운영



대안교실

9. 도시농부

- ◆ 강서구청에서 텃밭 30평을 30만원에 분양 받음
- ◆ 주1회 3시간을 한 블록으로 운영(강서구청 공모사업 선정)
- ◆ 친환경 농부와 학교 교사가 지도교사를 맡아 1년간 함께 함



- ◆ 학교에 수련 공간을 설치하고 퇴직 교사가 지도
- ◆ 주1회 3시간을 한 블록으로 운영



- ◆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개발
- ◆ 소방관 직업 체험
- ◆ 안전교육을 학교축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확산시킴



협력방안

2. 마을 봉사활동

- ◆ 마을의 needs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강구
- ◆ 배움, 감동, 성장이 있는 봉사활동
- ◆ 자신과 세계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진로와 연결



협력방안

3. 마을 경제탐색

- ◆ 재래시장 장보기 체험, 상인연합회 경제 교육 등
- ◆ 시장축제 체험부스, 교통통제
- ◆ 안전교육을 학교축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확산시킴



협력방안

4. 마을축제

- ◆ 2013년부터 마을축제를 함께 해오고 있음
- ◆ 행사장 준비, 공연, 부스운영, 뒷정리까지 주인으로 참여
- ◆ 동아리활동, 학생회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이 결합된 활동



협력방안

5. 학교축제

- ◆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어르신, 어린이 초대)
- ◆ 마을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는 장(마을사업 알림, 기금 조성)
- ◆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통합



협력방안

6. 김장나누기

- ◆ 학교텃밭 가꾸기,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과 연계
- ◆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과 연계
- ◆ 학생, 학부모, 교사, 동문, 법인이 함께 하는 잔치



협력방안

7. 사랑의 바자회

- ◆ 학생회, 동아리, 학부모회가 공동으로 주최
- ◆ 경매, 체험 등으로 활동을 다양화하고 마을의 동참을 조직
- ◆ 수익금은 마을과 네팔에 기부



협력방안

8. 마을상생학교(마을 결합형 학교)

- ◆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활동(서울시, 교육청 공동공모사업)선정
- ◆ 교사추진단 구성, 교사 학생 학부모의 마을활동 참여
- ◆ 학교교육에 마을역량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



운영성과

대안교실 운영성과 및 느낀점

◆ 운영 성과

- 학생들의 변화

- 풍부한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진로개척의지 강화
- 마을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공동체 의식 및 소속감 증대
-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한 자신 및 학교에 대한 자부심 고취
(김장나누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

- 학교 및 구성원들의 변화

- 일반학급에서의 면학분위기 제고
- 학생생활교육 용이 및 관련 민원 감소
- 학부모, 동문들의 교육참여 촉진(바자회, 마을축제 동참 등)

◆ 느낀점

- 긍정적 결과로 인한 보람과 성취감 향상
- 학생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및 교육의지 증대

감사합니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Homepage: www.gotoschool.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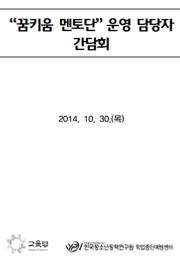
◎ 발행 자료

○ 자료실 > 통합자료실

-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2014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 집중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학생 실태, 지원 및 연계 방안 -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운영 사례 -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기법 	2014.02.03
 <p>2014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대응 방향 -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배경 - 학업중단 위기 과정에 따른 상담기법 - 학업중단 예방 운영 사례 	2014.08.06
 <p>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계획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교복우 사업) - 학업중단 위의원인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계 사례 	2015.02.16
 <p>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계획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교복우 사업) - 학업중단 위의원인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계 사례 	2015.07.28

- 꿈키움 멘토단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p> <p>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p> <p>• 일시: 2014. 5. 27(목) 11:00~17:00 • 장소: 대원 컨벤션센터 3층 컨퍼런스룸 • 주최: 교육부 •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임중단 예방센터</p>	<p>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키움 멘토단 운영 지원 방안 - 청소년 멘토링의 이해와 운영자의 역할 - 멘토링 사업 기획과 운영방안 	<p>2014.05.27</p>
 <p>꿈키움 멘토 수첩</p>	<p>꿈키움 멘토 수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개 - 멘토링 상담·활동·튜터·면담일지, 멘토링 운영 활동계획서 	<p>2014.05.27</p>
 <p>“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간담회</p> <p>2014. 10. 30(목)</p>	<p>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특강] 학업중단 청소년과 멘토링 - [사례 발표] ‘제주도 꿈키움 멘토링’ 	<p>2014.10.30</p>
 <p>2015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p> <p>2015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p> <p>일시: 2015.5.11(화) 10:00~17:30 장소: 연세대학교 강당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임중단 예방센터</p>	<p>2015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학업중단 예방 대책 추진 계획 - 꿈키움 멘토링과 관리자의 역할 - 꿈키움 멘토단 운영 사례 	<p>2015.05.20</p>

- 워크숍 자료집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p> 	<p>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교복우사업 제도 소개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중점사항 및 실무안내 	2015.04.16
<p>‘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p> 	<p>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대안교실 추진계획 및 컨설팅 사업 소개 -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 	2015.04.28
<p>‘2015년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위원 워크숍</p> 	<p>2015년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위원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의 필요성 및 영역(프로그램 설계, 동기유발, 직로직업 심리검사, 대학진학·비진학자 경력개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이해 -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내용 및 실무안내 	2015.06.04
<p>‘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p> 	<p>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개 권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사업 소개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이해와 멘토링을 위한 지원 방법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사례 - 해외의 학업중단 예방 대책 	2015.07.30

- 우수사례 공모전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2014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p> 	<p>2014년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부문 25개, 학생부문 5개 사례 	2015.04.16

- 대안교육 교원/담당자 연수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2014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연수</p>	<p>2014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특강]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대안, 대안교육 톺아보기 - [진로교육특강] 웃음을 활용한 진로지도, SCEP 진로교육 프로그램 - [리더십특강]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리더십 - 대안교육 모범프로그램(영산 성지교) 	2014.08.22
 <p>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p>	<p>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개 권역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 - 대안교실 구성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 대안교실 운영 사례 	2015.05.22
 <p>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p>	<p>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회복법: 청소년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책 및 동기회복 프로그램 - 창의적 진로개발(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 청소년 기업가정신) - 진로지도 사례 - 대안학교 대입진학지도 	2015.07.07

- 국제포럼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정책과 실천 International Forum for Alternative Education 2014 International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Policy and Practice</p>	<p>2014년 대안교육 국제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미국, 독일, 덴마크 등 대안교육 발전 동향 및 정책현황 - 샌즈스쿨(영국), 메트스쿨(미국), 발도르프 학교(독일), 헤스테하베 자유학교(덴마크), 이우학교(한국) 등 대안교육 사례 	2014.09.25
 <p>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International Forum for Alternative Education 2015 International Trends and Future Directions</p>	<p>2015년 대안교육 국제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호주, 덴마크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 - 생산적 학습(독일), 한즈온 러닝(호주), 곤잘로 가르자 독립학교(미국), 빅피쳐 러닝(미국), 프레네 교육(프랑스),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쿨레(덴마크) 등 대안교육 사례 	2015.09.16

○ 자료실 > 학업중단대책매뉴얼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길라잡이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 -</p>	<p>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교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 - 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방안 -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배경 및 단계별 운영방법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사례 등 	2015.02.27
<p>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길라잡이 - 부록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p>	<p>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목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시도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목록 	2015.02.27
<p>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 학교 밖 또래 갈 길 찾기</p>	<p>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상담·학업·취업 및 진로·경제적 지원 안내 및 관련 기관 소개 	2015.08.25
<p>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업중단 예방 길라잡이</p>	<p>학업중단 예방 길라잡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위기 대처 방안, 관련 정책 및 위기 극복 사례 소개 	준비중

○ 알림공간 > 학업중단을 고민하고 있나요?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p>새롭고... 학교 가자! 학교희망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p>	<p>학업중단 예방 리플릿</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숙려제·학생지원·예방체제와 대안교육에 대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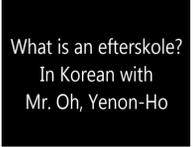
◎ 영상 콘텐츠

○ 자료실 > 영상콘텐츠

“교육의 길을 묻다” (E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대안교육, 다시 대안을 찾다	- 밀알 두레학교, 간디 자유학교, 덴마크 자유학교, 독일 발도르프 학교 등 국내·외 대안학교 장·단점	44'57"
	2부 거리에서 헤매는 학교 밖 아이들	-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실태(가출, 비행 등) - 학교 밖 청소년 포용 방안 모색	47'56"
	3부 변화? 힘들지만 두렵지 않다	- 두드림청소년회복센터, 샘물의 집, 경북청소년진흥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사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가정과 학교가 양립한 일본 오사카부립 슈토쿠 학원 사례	46'42"
	4부 기रो에 선 학교 부적응 아이들	- 재미있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중앙중학교의 신바람 대안교실 프로그램 사례 -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복귀 프로그램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 사례	48'05"
	5부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교육복지	- 농어촌 교육환경을 극복한 군포중, 속리산중 소개 - 다문화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48'35"

“대안교육을 돌아보다” (S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대안학교의 현실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 다인학교 등 국내 대안학교의 특징과 덴마크 대안교육의 제도 소개	56'
	2부 대안학교의 미래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의 대안학교 운영사례 - 덴마크(니스테드 애프터스콜레), 프랑스(프레네 교육) 등 해외 대안교육의 제도 소개 및 우수사례	50'
	1부 대안학교 문제 사례	- 미인가 대안학교의 문제점 등 국내 대안교육의 실제	14'28"
	2부 국내 대안학교 우수사례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의 대안학교 우수사례 - 공립학교(웅상중) 대안교실 우수사례	12'24"
	3부 국외 대안학교 우수사례	- 덴마크, 프랑스 등 국외 대안학교 운영 우수사례	16'57"

“우리는 두 번째 학교에 간다” (K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경계에 선 아이들	-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계기와, 현재 학업중단과 복교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56'55”
	2부 세상을 향해 외치다	- 좌절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연극치료를 통해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	56'07”
	1부 SOS 학교 밖 아이들	-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학업중단 원인별 학생들의 이야기	11'07”
	2부 벼랑 끝에서 만난 두 번째 학교	- 서울시 친구랑센터,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등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성공사례 -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등 학업중단 예방 제도	11'27”
	3부 학업중단자를 위한 세계의 학교	- 일본 프리스쿨 도쿄슈레, 덴마크 애프터스쿨, 미국 빅피쳐스쿨 등 국외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	11'43”

2015 국제포럼			
자료명	주요 내용	시간	
	덴마크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소개	덴마크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학교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의 일과와 다양한 활동을 소개	1'47”
	미국 곤잘로가르자 독립고등학교 소개	곤잘로가르자 학교는 위기학생의 수행성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어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학생들의 이야기	7'01”
	Hands On Learning	국내의 ‘학교 내 대안교실’과 비슷한 해외사례. 팀프로젝트, 목공, 집짓기 등 다양한 노작활동 중심의 활동 학습으로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또는 스스로 성공경험을 쌓아가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습득하며 변화된 학생들의 이야기	4'49”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홍보 (애니메이션)	덴마크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숙학교인 에프터스콜레에 대해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하는 영상	2'36”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홍보(국문)	덴마크 에프터스콜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	58”

연수자료집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인 쇄 : 2016년 1월 22일

발 행 : 2016년 1월 22일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발행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혁

인쇄처 : (주)계문사(02-725-5216)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
